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황 선 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국어 규범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 고등학교 '국어생활'과 '문법' 교과서 '국어 규범' 단원을 통해 -

200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석 형

국어 규범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 고등학교 '국어생활'과 '문법' 교과서 '국어 규범' 단원을 통해 -

황 선 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석 형

# 인 준 서

이석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규범에 맞는 언어생활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본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어에도 규범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 규범과 관련된 ‘교육 과정’의 체계와 ‘교과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어생활’과 ‘문법’ 교과서의 검토를 통해 국어 규범 교육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론에서는 국어 규범의 의미와 국어 규범 교육의 필요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국어의 규범은 좁은 의미에서, 4대 규범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뜻한다. 국어 규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확산되지 않았으며, 학교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있는 국어 규범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였다. 제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국어 규범이 단원으로 설정된 과목은 ‘국어생활’과 ‘문법’이다.

국어 규범과 관련된 단원이 교육 과정의 구성에 따라 어떻게 ‘국어생활’과 ‘문법’ 교과서에 반영되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국어생활’ 교과서에서는 ‘실천’을 통한 국어 규범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문법’ 교과서에서는 원리나 개념 학습이 강조되었다.

한편 2007년 국어과 개정 교육 과정의 변화는 ‘국어’의 검정 체제 전환, ‘국어생활’의 폐지, ‘매체 언어’의 신설로 요약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의 ‘국어’에서는 국어 규범과 관련된 부분이 ‘문법 영역’에 포함되어 있

고, 선택 과목인 ‘문법’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이 강조되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국어 규범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어생활’과 ‘문법’ 과목 간에 국어 규범에 관한 학습 내용이 얼마나 유기적인지 알 수 없었고, 그 단계도 심화·발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국어 규범과 관련된 학습 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심화·발전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어’의 ‘문법 영역’과 선택 과목인 ‘문법’의 성격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국어의 규범을 단계별로 배울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 논문 개요

<b>I. 서론</b> .....	1
1. 연구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3
3. 연구 대상 및 방법 .....	11
4. 국어 규범의 의미와 교육의 필요성 .....	13
<b>II. 국어생활 교과서와 국어 규범 교육</b> .....	20
1. 국어생활 과목의 성격과 내용 .....	20
2. 국어생활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 규범 단위 .....	23
1) 교학사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위’ .....	26
2) 대한교과서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위’ .....	32
3) 두산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위’ .....	37
4) 법문사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위’ .....	42
5) 블랙박스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위’ .....	48
6)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이삼형)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위’ .....	52
7) 중앙교육진흥연구소(조남현)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위’ .....	55
8) 지학사(박갑수)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위’ .....	61

9) 지학사(심재기)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원’ .....	65
10) 천재교육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원’ .....	71
11) 케이스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원’ .....	74
3. 국어생활 교과서의 영역별 특징 비교 .....	76
<b>Ⅲ. 문법 교과서와 국어 규범 교육</b> .....	90
1. 문법 과목의 성격과 내용 .....	90
2.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 규범 단원 .....	94
<b>Ⅳ. 국어 규범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b> .....	105
1. 제7차 교육 과정 국어 규범 교육의 문제점 .....	105
2. 2007년 개정 교육 과정 국어 규범 교육의 방향 .....	109
3. 국어 규범 교육을 위한 개선 방안 .....	114
<b>Ⅴ. 결 론</b> .....	123

## 참 고 문 헌

## ABSTRACT

## 표 차례

<표 1> 어문 규범의 준수 실태 조사 .....	17
<표 2>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 설문 결과 .....	18
<표 3> 11종 ‘국어생활’ 교과서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	24
<표 4> 교학사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	27
<표 5> 대한교과서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	33
<표 6> 두산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	37
<표 7> 범문사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	42
<표 8> 블랙박스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	49
<표 9> 중앙교육(이)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	53
<표 10> 중앙교육(조)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	55
<표 11> 지학사(박)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	62
<표 12> 지학사(심)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	66
<표 13> 천재교육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	71
<표 14> 케이스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	74
<표 15> 단원별 학습 목표 제시 여부와 명칭 .....	77
<표 16> 대단원 학습 목표 .....	78
<표 17> 중단원 학습 목표 .....	79
<표 18-1> 소단원 학습 목표① .....	80
<표 18-2> 소단원 학습 목표② .....	81

<표 19> 국어 규범 전반에 관한 서술 내용 .....	82
<표 20-1> 4대 규범 대표적 서술 내용① .....	83
<표 20-2> 4대 규범 대표적 서술 내용② .....	84
<표 20-3> 4대 규범 대표적 서술 내용③ .....	85
<표 21-1> ‘방언, 복수 표준어, 남북 언어 관계’ 대표적 서술 내용① .....	87
<표 21-2> ‘방언, 복수 표준어, 남북 언어 관계’ 대표적 서술 내용② .....	88
<표 22> 교과서 부록 ‘4대 규범 전문’ 제시 여부 .....	89
<표 23> 제7차 문법 교과서 ‘국어의 규범’ 단원 구성 내용 .....	95
<표 24> 대단원과 중단원 학습 목표 .....	96
<표 25> 문법 과목의 성격 변화 .....	115
<표 26> 제7차 문법 과목과 개정 문법 과목 체계 .....	116
<표 27> 제7차 문법 과목과 개정 문법 과목의 ‘국어 규범’ 부분 .....	117
<표 28> 개정 교육 과정 ‘국어 규범’ 부분 .....	119

# I. 서론

## 1. 연구 목적

현재의 국어 교육은 제7차 교육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많은 발전을 해 왔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활동은 교육의 내용과 모습을 많이 변화시켰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기본적인 말하기 능력과 글쓰기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말하기와 읽기 활동은 정확한 표준어 사용과 표준 발음의 이해가 요구되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은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국어 규범의 올바른 학습을 통해 보다 원활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우리말과 글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어 규범에 대한 생각은 더욱 심각하다. 국어 규범에 대한 교육 현장의 관심 부족은 학생들의 언어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학생들은 국어의 규범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국어의 규범에 대해 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교과서는 교육 과정을 통해 그 내용과 체계가 구성된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를 통해 가르치고 배운다. 본 연구는 제7차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과서와 ‘문법’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국어 규범과 관련된 단원을 대상으로 삼았다.

흔히 ‘교육’을 ‘무엇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왜 그것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sup>1)</sup> 교육 현장을 염두에 두지 않은 교육 연구는 존재 가치가 없다. 바꿔 말하면 교육적 연구의 결과는 언제라도 현장에 실제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연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전제를 망각한 채 이루어지는 교육적 모색은 탁상공론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가능성이 많다. 또 어떤 분야든 간에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교육적 가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우선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sup>2)</sup>

국어 규범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어생활 교과서와 문법 교과서의 국어 규범과 관련된 단원을 분석함으로써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제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국어 규범을 하나의 단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과목은 ‘국어생활’과 ‘문법’이다. 국어생활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이며, 문법 과목은 심화 선택 과목이다. 국어의 규범 단원이 선택 과목의 단원으로 설정된 배경과 국어생활 교과서와 문법 교과서로 나뉘어 전개된 이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의 방향을 찾게 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어 규범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된 국어 규범에 관한 교육 내용이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

1) 이삼형 외 7인, 『국어교육학과 사고』, 역락, 2007. p.17.

2) 김광해,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75.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교육 과정을 통해 구현된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 검토하는 일은 국어 규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요소가 될 것이다.

## 2. 선행 연구 검토

국어 규범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규범 자체에 대한 것과 그 실태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대학원 논문은 주로 교과서 전체를 비교, 분석하여 그 가운데 일부 항목으로만 제시한 것이 많았다. 국어 규범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국어 규범 자체와 관련된 연구이다.

김주필은 표준어 사정 원칙에 제시된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맞춤법 규정에 앞서 표준어 규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표준어 규정과 맞춤법 규정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는 조항들이 생기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sup>3)</sup>

김세중은 표준어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 사정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아 표준어는 규범어이며 맞는 말이고, 비표준어는 비규범어이고 틀린 말이라는 잘못된 공식이 성립했다는 것이다.<sup>4)</sup>

---

3) 김주필, 「표준어 사정 기준과 표준어의 성격」, 『새국어생활』 제14권, 2004.

4) 김세중, 「표준어 어떻게 할 것인가」, 『새국어생활』 제14권, 2004.

박갑수는 표준어 정책의 역사와 함께 표준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복수 표준어는 인정하였고 학교와 사회에서는 표준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김선철은 표준 발음법의 총칙과 각 장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표준 발음법은 개정하여 언어 현실과의 거리를 없애야 하겠지만, 그때까지의 혼란과 잦은 개정의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보고, 표준 발음법은 폐지하고 국어사전의 기술에 의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sup>6)</sup>

김현숙은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을 비교 검토하면서, 규정과 언어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었다. 첫째는 규정 자체가 지니는 오류 때문이고, 둘째는 언어가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소리의 첨가’까지 현실 발음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체제, 표현상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다.<sup>7)</sup>

박창원·김수현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외래어 표기 규정부터 현행 외래어 표기까지의 표기 원칙의 변화를 실제 단어들을 통해 잘 정리하였다.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은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언중은 외래어 표기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어도 정확하게 익혀서 배울 생각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등은 각기 다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내재되어 있는 원리는 동일한 것이고, 표면적인 규정에서도 연관이 있어 언어와 문자의 상보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8)</sup>

---

5) 박갑수, 「표준어 정책의 회고와 반성」, 『새국어생활』 제14권, 2004.

6) 김선철,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 『새국어생활』 제14권, 2004.

7) 김현숙, 「표준 발음법의 비판적 검토」,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6.

이효이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실태와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어문 규범은 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 사항임에도 한쪽으로 쏠아 놓고 원하는 사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 생활 국어, 고등학교 국어, 국어생활, 문법 교과서의 로마자 표기법 관련 단원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4대 어문 규범 교육은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하고, 교육 과정의 강도는 선택에서 기본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sup>9)</sup>

실태 조사를 통해 국어 규범과 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도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에서는 국어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분야별로 잘못된 예와 바른 표현을 제시하여 어문 규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특히 우리말 오염의 주범은 대중 매체라고 지적하고 조사된 오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표준 발음법 등을 포괄하는 어문 규정과 관련된 것들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었다.<sup>10)</sup>

박덕유는 맞춤법과 표준어를 중심으로 중·고등학생의 어문규정 인지 실태를 조사하였다. 8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00개의 단어를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실태 조사는 정답률이 낮은 문항을 분석하여 어문규정의 조항과 연계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보려는 의도였다. 이 조사는 어문규정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학교에서 정서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복수 표준어에 대한 정답률이 매우 낮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sup>11)</sup>

---

8) 박창원·김수현, 「외래어 표기 양상의 변천」, 『새국어생활』 제14권, 2004.

9) 이효이, 「국어 로마자표기법 실태와 학교교육의 필요성」,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7.

10) 국립국어연구원,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II』, 가야원, 2002.

이관규는 450개의 국어 지식 논저 분석에서 어문 규범과 관련된 것이 단어 분야보다 훨씬 높은 7.5%로 나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1정 중등 교사 연수에서 국어 교사들에게 ‘국어 지식 과목에서 강조해서 다루기를 바라는 영역’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어문 규정 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sup>12)</sup>

다음은 문법 교육에서 국어 규범 교육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법 교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토한 내용들이다.

이관규는 국어교육학이 하나의 완성된 학문으로 지위를 잡았다고 보았다. 또한 국어교육학이 종래의 단순 인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는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학습 단계가 심화될수록 국어지식(문법) 학습이 더 강조된다고 보았다.<sup>13)</sup>

한편 ‘문법 교육 연구사 정리’에서는 문법 교육 연구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2000년 7월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신문지상에 논의가 많이 있었고, 2002년 3월부터 고등학교에 국어생활이라는 과목이 등장하면서, 어문 규범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실천성을 전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up>14)</sup>

김기용은 서울 소재 인문계 고등학생 300명의 설문 조사와 제6차와 제7차 교육 과정 상의 문법 교육의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는 국어 규범 파괴 현상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에서 문법 교육이 실종되고 있다

---

11) 박덕유, 『문법 교육의 탐구』, 집문당, 2002, pp.183~207.

12) 이관규,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집문당, 2005, pp.371~377.

13) 이관규, 「제7차 문법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문법 내용의 특징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14집, 2002, pp.321~354.

14) 이관규, 「문법 교육 연구사」, 『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2005, pp.32~33.

고 보았다. 사이버 공간에서 국어의 문법이나 규범이 파괴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94%에 이른다고 보고, 이 중에서 61.7%가 국어 규범의 파괴 현상이 ‘국어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문법 과목을 심화 선택에서 일반 선택으로 전환하고, 국어생활 과목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해야 단위수도 독서, 작문, 문학처럼 8단위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문법 과목을 국어 과목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제시하였다.<sup>15)</sup>

구정모는 서울·경기·충청 지방 인문계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200명과 20~21세 정도의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법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맞춤법이 조금이라도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84%에 이르렀다. 특히 학교에서의 맞춤법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 13%만이 만족하고 있었는데, 맞춤법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대부분의 불만은 ‘교과서의 내용 부족, 맞춤법 수업 시간의 부족, 교사의 지식 부족’으로 조사되었다. 학습자가 스스로 언어 자료를 조사하여 규칙을 찾아내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지도방법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맞춤법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16)</sup>

김문향은 경북 지역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꼭 필요하지만 혼동하기 쉬운 외래어 표기 문항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외래어 표기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의 표준 발음에 맞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외래어의 발음과 표기 차이는 결국 외래어 표기의 혼란을

---

15) 김기용, 「고등학교 문법 교육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안 모색」,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3.

16) 구정모, 「한글맞춤법 사용 실태 및 맞춤법 교육의 문제」,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5.

주게 된다고 보았다. 해결 방안으로는 ‘학교 교육의 중요성, 각종 매체의 역할, 외래어 표기법 자체의 문제점 해결’ 등이 제시되었다.<sup>17)</sup> 다음은 제7차 국어과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경진은 국어생활 교과서의 영역별 대단원 구성에서 ‘국어생활 실천’ 부분이 ‘국어와 우리의 삶’이나 ‘국어생활과 국어정신’ 부분에 비해 54~7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은 교과서에서 단순하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들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교과서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sup>18)</sup>

박소영은 8종의 국어생활 교과서를 분석하였는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고 보았다. 국어생활 과목은 ‘실제적 생활로서의 국어’를 익히는 과목이므로 타 교과서와는 다르게 학생들의 실제 활동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국어생활 교과서의 체제, 단원 구성, 영역별 내용이 종합적으로 잘 나타나 있었다.<sup>19)</sup>

김진영은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고, 국어 교과서의 다양한 기능(관점 반영의 기능, 내용 제공 및 해석 기능, 교수·학습 자료 제공의 기능, 교수·학습 방법의 제시 기능, 학습 동기 유발의 기능, 학습의 정착 및 적용 기능, 평가 자료 및 방법의 제시 기능)을 통해 11종 국어생활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가 어떠한지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11종 국어생활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가 어떤 순서로 구성되었으며, 단원의 길잡이,

---

17) 김문향, 「외래어 표기 실태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5.

18) 이경진, 「고등학교 국어생활 교과서 비교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5.

19) 박소영, 「고등학교 국어생활 교과서 분석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3.

단원 학습 목표 제시 여부, 소단원 학습 활동명과 내용, 수준별 활동 내용 등이 잘 나타나 있었다.<sup>20)</sup>

김밀라는 ‘국어(상), (하)’에 나오는 국어지식 영역은 부족한 면이 많으며, 그것을 채우기 위해 국어생활 과목과 문법 과목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문법 과목이 선택과목이고 어렵기 때문에 선택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sup>21)</sup>

윤진미는 제7차 교육 과정의 교과서 편찬 방향과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을 기준으로 11종의 국어생활 교과서의 각 대단원 구성(5대단원 체제~11대단원 체제)과 단원 구성 방식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교사용 지도서 총론의 ‘국어생활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을 비교한 내용은 각 국어생활 교과서가 어떤 교과서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교과서에 반영되었는지 나타내 주고 있다.<sup>22)</sup>

신미경은 표준어와 맞춤법 교육에 있어 창의적인 지도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행 표준어와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으로 ‘공통 교과 과정에서의 표준어 맞춤법 교육 결여, 교과 과정의 적절하지 못한 순서, 선택 과목의 낮은 선택률, 국어지식 영역의 낮은 수능 반영률, 문법 지식과의 연관성 결여, 다른 영역과의 연관성 결여,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 등 7가지를 제시하였다.<sup>23)</sup>

---

20) 김진영, 「고등학교 국어생활 교과서 단원구성 체제 연구-제7차 11종 교과서의 비교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21) 김밀라, 「국어 문법 교육과 교과서 문제점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22) 윤진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생활 교과서 편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5.

23) 신미경, 「7차 문법 교과서와 국어생활 교과서 비교 연구-표준어와 맞춤법 교육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6.

민지현은 서울 시내 30곳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출판사별 국어생활’ 교과서 선택 사항을 제시하였다. 기존 국어생활 교과서 분석 연구가 교육 과정에 대한 반영 정도나 단원 구성 체제에 관한 것이 많았다고 보고, 이와 달리 ‘교수·학습 방법, 편집 및 외형 체제, 독창성’의 측면을 ‘고등학교 2종 도서 검정 기준’에 맞추어 분석하였다.<sup>24)</sup>

안홍근은 현재의 국어 교육은 전반적으로 국어 규범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1학년~10학년)의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표준어, 표준 발음, 맞춤법 부분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표준어의 개념 교육이 9학년에서야 처음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표준 어휘도 국어 지식 영역에서만 교육 내용이 편성되어 있고 국어 순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보았다. 표준 발음의 경우는 내용의 선정, 편성 순서, 학습의 연속성, 내용의 연계성, 단원의 위계성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sup>25)</sup>

정영은 문법 교과서의 단원별 분석을 통해 현재의 문법 교육이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통사론 위주의 교육 내용에서 벗어났다고 보았다. 그리고 문법 교육이 과거와 다르게 진보했는데, 문법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국어에 관한 지식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확대되었다는 점과 문법 내용이 단순 암기식 교육 내용을 지양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sup>26)</sup>

이지연은 고등학교 심화 선택 과목의 순서에서 ‘문학>독서>작문>문법’의

24) 민지현, 「고등학교 국어생활 교과서 비교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6.

25) 안홍근, 「교과서의 국어 규범 내용 및 문제점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7.

26) 정영,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순으로 ‘문법’은 기피 대상이고, 수능 시험과의 연관성도 희박하다고 보았다. 제6차 교육 과정 문법 교과서에서 국어 규범 관련 단원이 ‘표준어와 맞춤법’ 뿐이었는데, 제7차에서는 ‘표준어와 표준 발음,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확대되었음을 제시하였다.<sup>27)</sup>

선행 연구는 주로 국어 규범에 관한 것과 국어의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실태에 관한 것이 많았다. 또한 국어생활 교과서와 문법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국어의 규범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다.

###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어 규범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국어 규범과 관련된 단원은 일반 선택 과목인 ‘국어생활’과 심화 선택 과목인 ‘문법’에 있다. 국어 규범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어생활’과 ‘문법’ 과목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검토는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다. 특히 문법 과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문법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 이유는 문법 교육에 관한 자료들과 국어 규범 전반에 관한 연구 내용들은 문법

---

27) 이지연, 「문법교과서의 비판적 검토-제7차 문법」,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6.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서의 내용과 문법 연구서들은 국어생활 교과서와 문법 교과서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국어생활 교과서와 문법 교과서의 분석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순서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각 교과서에 해당하는 교사용 지도서도 검토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국어의 규범은 흔히 말하는 4대 규범으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의미한다. 교과서의 구체적 분석 대상은 ‘한글 맞춤법’에서는 ‘띄어쓰기, 문장 부호, 어법에 맞는 문장’은 제외되고, ‘표준어 규정’에서는 ‘표준 발음법’을 포함하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각 나라의 ‘표기 세칙’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어생활 교과서는 같은 출판사라도 집필자와 체제가 다르므로 11종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한다. 특히 다른 교과서와 차별화 돼 있거나,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은 교과서나 교사용지도서의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어생활 교과서 검토는 마지막에 11종 교과서의 4대 규범을 설명한 내용과 주요한 특징에 대해 별도의 표로 정리하여 비교해 볼 것이다.

세부적인 검토 사항은 ‘국어생활’과 ‘문법’ 과목의 성격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의 여부, 각 교과서의 국어 규범 단원 체제, 학습 목표의 내용, 4대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교과서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여 전개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서, 국어생활 교과서와 문법 교과

서의 분석 내용, 각각의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얻게 된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2007년 국어과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

이를 통해 얻은 ‘문제점’은 국어의 규범 교육을 위한 ‘개선 방안’의 기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교과서 자체 분석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어 규범 단원이 교육 과정의 내용을 통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도 파악해 볼 것이다.

2007년 국어과 개정 교육 과정의 기본 골격은 제7차 교육 과정과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변화가 있다. 그 변화는 ‘국어’ 과목이 검정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고, ‘매체 언어’ 과목이 신설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어생활’ 과목은 없어지고 ‘문법’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변화가 본 연구의 핵심이 된다.

앞으로 제7차 교육 과정의 국어 규범과 관련된 단원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국어 규범에 대한 교육 내용이 검정 체제로 전환하는 ‘국어’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유지되는 ‘문법’ 과목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기대가 된다.

#### 4. 국어 규범의 의미와 교육의 필요성

국어의 규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 장에서는 국어 규범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국어 규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어 규범에는 크게 말 관련 규범과 글 관련 규범이 있는데, 입말의 규범에서는 흔히 ‘표준 화법, 표준어, 표준 발음법’의 내용을, 글말의 규범에서는 단어 규범, 문장 규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국어의 규범은 좁게는 4대 표기법 즉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말하고 있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의 규범은 ‘① 바르게 글자 쓰기[문자 지도법, 표기 문체 지도(한글 전용, 국한 혼용)], ② 바르게 발음하기(표준 발음법), ③ 바르게 단어 쓰기[정서법(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④ 바르게 글쓰기[문장 보호법, 통사법(비문 예방, 바른 문장 쓰기)], ⑤ 바르게 말하기[문장법, 호칭어·지칭어 사용법)], ⑥ 바르게 뜻하고 전하기[담화법(바른 의미 표현과 오해 예방)]’ 까지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sup>28)</sup>

이 중에서 현행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1호와 2호로 고시되었으며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 1월 7일 문교부 고시 제85-11호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로 고시된 이래, 국어 표기의 원칙과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

좁은 의미의 국어의 규범은 국어 정서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어 정서법은 국어를 바르게 표시하는 모든 규정을 말한다. 정서법은 후단 언어학의 한 분야로 응용 언어학에 속한다. 국어 정서법의 하위 개념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이 있다.<sup>29)</sup>

---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문법 교사용 지도서』, (주)두산, 2002, p.293.

29) 김진규, 『맞춤법과 표준어』, 공주대학교 출판부, 1997, p.129.

한 언어사회에서는 문자사용 방법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과 같이 문자의 사용이 확대되는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을 규범으로 정하여 언어사회의 구성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구성원들이 정해진 규범에 따라 문자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문자를 통한 표현과 이해를 간편하게 하고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국가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정해 놓고 문자 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있다.<sup>30)</sup>

우형식은 국어 정서법의 가치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한 언어사회의 언어와 문자 생활의 길잡이가 된다. 둘째, 사전의 편찬에 필요하다. 셋째, 교육을 위한 길잡이가 된다. 넷째, 국어를 사용하는 데 노력경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섯째, 한 언어사회의 일체감을 기할 수 있다. 여섯째, 국어의 정리, 보존, 순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표준어,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의미가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어는 해당 국가 안에서는 어디서나 공통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다듬은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공통어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표준어는 공통어인 동시에 규범성을 지니는 말이라는 점에서 공통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올바른 말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것이 공통어라면, 표준어는 반드시 올바른 말이어야 한다는 규범성을 띠는 것이다.

표준어로는 대체로 하나의 개별 언어를 구성하는 여러 방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보급이 쉬운 방언, 지역적으로는 수도의 방언이 선택되는 일

---

30) 우형식, 『한글과 정서법』,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pp.8~13.

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쓰는 말이, 영국에서는 런던에서 쓰는 말이,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 쓰는 말이 표준어가 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표준어는 인공적으로 다듬어지게 되므로 서울말이 그대로 국어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물건에 대한 명칭이 서울말에 없고 다른 방언에 있을 때, 그 방언의 단어가 표준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sup>31)</sup>

한글 맞춤법은 원칙적으로 고유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국어의 현실을 고려하여 한자어와 귀화어까지를 포괄하여 규정이 마련된다.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규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표준어는 어휘와 발음만이 아니라 문법까지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방언 사이의 문법적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표준어는 본래 음성언어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지만, 이 역시 문자언어의 표기 대상이 된다.

외래어 표기법은 국어 속의 외래어를 표기하는 규정이다. 특정 언어는 끊임 없이 다른 언어와의 다양한 접촉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어 속에는 수많은 외래어가 들어 있고 이들도 국어생활에 사용되고 있다. 외래어도 넓은 의미의 국어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한글로 표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도 역시 국어 정서법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의 셋은 표기 수단이 국자(國字)인 한글이라는 공통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역으로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sup>32)</sup>

---

31) 강희숙, 『국어정서법의 이해』, 역락, 2004, pp.239~240.

32) 우형식, 앞의 책, pp.20~21.

그렇다면 국어의 4대 규범은 왜 배워야 하는가? 그 필요성은 다음의 조사 결과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어문 규범의 준수 실태<sup>33)</sup>를 조사하였는데, 어문 규정에 대한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문 규범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고 잘 지켜야 할 언론 매체들의 실태 조사 결과는 충격을 주고도 남는다. 이것은 국어의 규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 어문 규범의 준수 실태 조사

	어문 규정	어휘	문법 및 문장
방송	89.53%	6.0%	4.48%
신문	64.26%	15.28%	20.47%
인터넷	74.25%	9.27%	16.48%

선행 연구의 학생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국어의 규범을 지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학생들이 제기한 내용이다. 학생들은 국어 규범과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이 부족하며, 국어 규범을 배울 시간이 부족하며, 교사들의 지식도 부족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교사들은 국어 지식(문법) 과목에서 강조해서 다루기를 바라는 영역으로 ‘어문 규정’을 높게 들고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은 어문 규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었다.<sup>34)</sup>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국어 과목에는 국어의 규범과 관련된 단원 구성이 없어 학생들이 체

33) 국립국어연구원, 앞의 책, p.1. 표 인용.

34) 이관규, 앞의 책, pp.183~207.

계적으로 배우기가 힘들다. 또한 나머지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선택 과목은 단위 학교에서 선택되지 않는다면, 국어의 규범을 학습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표 2>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 설문 결과

항목	말소리	단어	문장	이야기	어문 규정	합계
중학교 교사 수	6	23	44	43	36	152명
백분율	4.0	15.1	28.9	28.3	23.7	100%
고등학교 교사 수	21	31	59	49	70	232명
백분율	9.1	13.4	25.4	21.1	31.0	100%

국어의 규범 교육이 강조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제7차 교육 과정의 국어생활 교육 과정 내용과 문법 교과서의 ‘국어의 규범 단원 설정 취지’에서 확인된다.

국어생활 교육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어 사용의 실천이 막연한 관념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국어의 실천 마당인 우리 문화 속에서 국어 규범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국어 규범에 대한 학습이 실천성의 강화에 놓여야 한다는 점과 국어 규범 교육이 국어와 국어 문화를 사랑하는 실천적 태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국어 규범 교육이 국어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깨닫게 된다.

한편 제7차 문법 교과서의 ‘국어의 규범 단원 설정 취지’에서 어문 규범은 국어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규범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국어과 학습은 물론 다른 교과 학습에 장애를 가져온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어과의 규범 교육은 전 교과의 학습 능력

을 좌우하는 기초 부문이며 국어과를 도구 교과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어 규범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어 규범 교육은 국어 교과나 다른 교과의 학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 Ⅱ. 국어생활 교과서와 국어 규범 교육

### 1. 국어생활 과목의 성격과 내용

제7차 교육 과정의 국어 교과서의 편제는 그 관계가 복잡한데, 국민 기본 공통 과목인 ‘국어’ 과목은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수하고 일반 선택 과목인 ‘국어생활’은 11학년(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수하며, 심화 선택 과목은 11학년과 12학년에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관계는 선수 과목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을 이수해야 심화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인문·사회 과목군에 편성된 일반 선택 과목인 ‘국어생활’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국어 교과 관련 심화 선택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해도 된다.<sup>35)</sup>

국어생활 교과서에서 국어 규범 단원이 어떤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국어생활 과목의 성격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가 될 것이다. 우선 제7차 교육 과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구성한 국어과 교육 과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국어생활 과목의 큰 특징을 알 수 있다. 먼저 과목의 신설과 성격 변화에 대한 것이다. 제6차의 ‘공통 필수 과목’과 ‘과정별 필수 과목’의 편제를 ‘국민 기본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구조로 바꾸

35)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국어』,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p.12.

었다는 것이고, ‘국어생활’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그 신설 목적은 ‘국어 교과  
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국어생활 과목의 역할  
에 대해서는 ‘국어’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가교가 된다는 것을 명시하였  
다. 앞으로 전개될 국어생활 교과서 분석에서 바로 ‘가교’ 역할이 핵심어가  
될 것이며, 분석의 초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국어생활 과목은 ‘시민 윤리’와 ‘인간 사회와 환경’ 과목과 함께  
인문·사회 과목군으로 분류되어 이론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1/3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국어생활 과목은 교양 증진과 실제의 국어생활과의 관련성을  
강화하고 국어 과목의 교육 내용의 통합성을 강조한다는 관점에서 그 성격  
을 규정하였다.<sup>36)</sup>

이제 구체적으로 국어생활 과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서의 ‘국어생활’ 부분을 보면 ‘실제’와 ‘실천’이  
란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 즉 국어생활 과목은 한마디로 ‘실제적 생활  
로서의 국어’를 익히는 과목이다. 국어를 학문적 대상이 아닌 실제의 생활이  
나 경험의 체득을 통해 교육하는 과목이라는 것이다. 경험 자체가 교육 과  
정인 진보적 교과관의 토대를 갖고 있으며, 교육은 삶의 실천적인 면을 중  
시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어생활 과목의 핵심어는 단순한 지식 학습이 아닌 ‘실천’이다. 국어생활  
과목은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국어와 우리의 삶, (2) 국어생  
활의 실천, (3) 국어생활과 국어 정신’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2) 국어생활  
의 실천’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핵심 영역으로 보는 것은 앞에서 제시한

---

36) 교육부, 앞의 책, p.13.

‘실천’과 무관하지 않다.

‘국어와 우리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은 ‘국어생활의 실천’ 과정에서 체득하게 되고, ‘국어생활을 성찰하는 활동이나 국어를 가꾸려는 태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곳이 ‘국어생활의 실천’ 활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2) 국어생활과 실천’ 영역을 가장 핵심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어생활과 실천’ 영역은 ‘바른 국어생활’, ‘문화 속의 국어생활’, ‘창조적인 국어생활’의 세 가지로 체계화하였다. 바른 국어생활에서는 국어의 규범을 익혀 그것을 표현과 이해 활동으로서 바르게 적용하도록 구성하였다.

문화 속의 국어생활에서는 선인들의 전통적인 언어문화를 계승하고, 삶의 양식과 밀착되어 있는 국어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며, 이들 전통 및 생활 문화가 전달되는 매체 환경을 이해하고 매체를 통한 국어생활을 학습하게 한 것이다.<sup>37)</sup> 다음에 제시한 문장은 바로 국어생활 과목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그 실천성은 국어 규범 교육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국어사용의 실천성은 막연한 관념으로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국어의 실천 마당인 우리 문화 속에서 국어 규범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국어 규범에 대한 학습이 지식의 학습이 아니라 실천성의 강화에 놓여 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국어생활’ 과목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격이다. 이렇게 할 때라야 비로소 실천으로서 국어 규범 교육이 국어와 국어 문화를 사랑하는 실천적 태도에 가 닿을 수 있다.<sup>38)</sup>

이와 같이 국어생활 과목은 글자 그대로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의 성격

---

37) 교육부, 앞의 책, p.96.

38) 교육부, 앞의 책, p.92.

을 짚게 갖고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장을 달리하여 국어 규범 단원이 교육 과정의 서술대로 얼마나 충실히 그것을 따르고 있는지, 11종 교과서의 국어 규범 단원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2. 국어생활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 규범 단원

국어생활 과목의 목표는 ‘국어사용의 일반적인 소양과 일상 속에서의 국어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을 길러 능동적인 국어생활을 실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이다.

이러한 목표는 다섯 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나. 국어의 규범을 알고 국어생활에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한다.’라는 세부 사항을 통해, 국어생활에 필요한 국어 규범을 잘 익히도록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어생활 과목의 ‘국어 규범’ 단원 내용을 살펴본 후 표를 통해 국어 규범의 주요 특징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각 국어생활 교과서의 국어 규범 단원 구성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3> 11종 ‘국어생활’ 교과서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발행처	집필자	대단원	단원 내용
교학사	김대행, 김중신, 김동환, 이성명	바른 국어생활	1.규범의 기능 2.국어의 규범 3.표현활동과 국어 규범 4.이해 활동과 국어 규범
대한 교과서	한철우, 왕문용, 천경록	올바른 국어생활	1.한글 맞춤법 2.표준어와 표준 발음 3.단어의 발음과 표기 4. 문장의 호응
두산	노명완, 김재홍, 하태원, 김윤종, 최영균, 민태윤, 양신모, 한일규, 이찬호, 김창동	바른 국어생활	1.우리말 규범의 중요성 2.우리말 규범의 이해와 사용
법문사	임홍빈, 한재영, 이석록, 유문선, 김성규	바른 국어생활	1.국어생활과 규범 (1)국어 규범의 기능 (2)국어 규범의 이해와 표현 2.국어 규범의 실천 (1)표준어 (2)표준발음 (3)한글맞춤법 (4)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5)어법
블랙박스	한계진, 이성구, 박정규, 시정곤, 하희정	규범에 맞는 국어생활	4.1 표준 발음, 왜 중요한가? 4.2 표준어 사용, 왜 필요한가? 4.3 올바른 맞춤법, 어떻게 익힐까? 4.4 어법에 맞는 말이란?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이삼형, 정성배, 이근표, 김창원	바른 국어생활	1.국어생활과 규범 (1)언어생활과 규범 (2)국어의 규범 2.국어 규범의 실천 (1)표준어 (2)표준발음 (3)맞춤법 (4)어법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조남현, 이현희, 조용기, 최영환	바른 국어생활	(1)바른 발음과 표기 (2)표준어 (3)바른 높임 표현 (4)바른 문장 표현
지학사	박갑수, 정재찬, 심영택	바른 국어생활	1.국어 규범 지식 (1)사회적 약속으로서의 언어 (2)국어 규범의 올바른 이해 2.국어 규범의 사용 (1)이해 활동과 국어 규범의 사용 (2)표현 활동과 국어 규범의 사용
지학사	심제기, 조항범, 김정우, 유입하	국어 규범의 이해와 실천	1. 국어 규범 지식 (1)국어 규범의 기능 (2)국어의 중요 규범 2. 국어 규범의 사용 (1)이해 활동과 국어 규범 (2)표현 활동과 국어 규범
천재교육	김홍규, 이관규, 심상인	바른 국어생활	1. 국어 규범 지식 (1)국어 규범의 기능 이해 (2)국어의 중요 규범 2. 국어 규범의 사용 (1)국어 규범과 이해 활동 (2)국어 규범과 표현 활동
케이스	김광해, 윤여탁, 유영희, 김현중, 김원용	정확한 국어생활	1. 국어의 규범 (1)규범의 중요성 (2)국어의 중요 규범 2. 정확한 말과 글 (1)정확한 단어 (2)정확한 문장 (3)정확한 글

‘(가) 바른 국어생활’은 ‘① 국어 규범 지식’과 ‘② 국어 규범의 사용’으로 나누고 있다. ‘국어 규범 지식’은 다시 ‘① 국어 규범의 기능을 이해한다.’와 ‘② 국어의 중요 규범을 익힌다.’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 규범의 기능을 이해한다.’에서는 규범의 개념 알기, 국어는 다양한 규범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알기, 통일된 규범이 수월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알기, 규범은 제한적 성격만이 아니라 생산적 역할도 한다는 사실 알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규범 준수의 태도 갖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학습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국어의 중요 규범을 익힌다.’에서는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같은 표기법 관련 사항, 표준어와 표준 발음, 그리고 호응이나 높임법 등과 같은 문법 차원의 규범이 두루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방법으로는 규범을 낱말로 암기하는 것 보다는 개별 사례의 분석을 통해 원리 이해에 도달하는 탐구 학습의 방식을 적용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사례들은 가능한 한 학생들이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의 예를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국어 규범의 사용’ 항목으로 ‘① 국어 이해 활동에서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내용이다. 규범은 표현의 상황과 관련이 있고 이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듣기와 읽기라는 구체적인 국어 활동의 장면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이 부분을 선정하게 된다. ‘② 국어 표현 활동에서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말하기와 쓰기 활동에서 국어 규범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바른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2) 국어생활의 실천’ 영역 속에서 ‘(가) 바른 국어생활’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각 국어생활 교과서에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규범의 개념, 다양한 규범 소개, 통일된 규범으로 수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규범의 생산적 역할, 규범 준수 의 태도 등의 내용들이 낱말의 단어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그 원리를 이해하고 접근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이해 활동(듣기, 읽기)’과 ‘표현 활동(말하기, 쓰기)’으로 균형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먼저 각 교과서의 단원 구성 내용을 제시하여 교과서의 큰 틀을 읽어 보고, 이를 통해 ‘국어생활’ 교육 과정의 내용이 교과서에서는 어떤 형태로 혹은 어떤 명칭이나 용어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단원별 내용을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갈 것이다.

### 1) 교학사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원’

교학사의 ‘국어생활’ 교과서는 ‘바른 국어생활’ 대단원 속에 ‘규범의 기능, 국어의 규범, 표현 활동과 국어 규범, 이해 활동과 국어 규범’의 4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표현 활동과 국어 규범’ 단원에서는 철자법, 띄

어쓰기, 표준어와 표준발음에 관한 문제를 항목별로 만들어 놓았다. 학생들은 가장 틀리기 쉬운 것들을 직접 풀어봄으로써 자신의 국어 규범 수준을 알아볼 수 있다.

<표 4> 교학사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대단원 제목과 내용	소단원 순서와 주요 내용	소단원 구성 요소	단원의 마무리
Ⅲ. 바른 국어 생활 (학습목표, 미 리 해 보기)	01. 규범의 기능 (언어의 규범적 특성, 규범의 기능, 규범 준수의 태도 갖기) 02. 국어의 규범 03. 표현 활동과 국어 규범 (당신의 우리말 실력은?) 04. 이해 활동과 국어 규범 (규범적 지식의 필요성, 함축 의미 읽어 내기, 정확한 의미 파악하기, 바로 잡아 이해하기, 일탈 표현 효과 이해하기)	(1)학습목표 (2)들어가기 (3)익히기 (4)알기 (5)넓히기	(1)정리 (2)평가 (3)보충·심화 (4)점검

언어 규범은 구성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언어 규범은 제한성과 함께 생산성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익히기’ 문제는 학생들이 규범의 생산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 수준이나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해 준다.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태도도 강조한다. 규범은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방송에서 규범에 어긋난 발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방송 자막이나 신문, 잡지에 띄어쓰기가 잘못되었거나 맞춤법 규범

에서 벗어난 표기는 없는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문에서 서로 호응이 되지 않는 요소가 발견되지는 않는지 눈여겨 살펴보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 활동은 위의 개념들을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어의 4대 규범은 어문 규정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 활동은 4대 규범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국어의 어문 규정>

1. 맞춤법 규정 : 우리말을 글로 적을 때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정해 놓은 규정. 맞춤법 규정 안에는 띄어쓰기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2. 표준어 규정 : 같은 대상을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말하거나 발음할 때 어떤 것을 표준어로 정할 것인가를 정해 놓은 규칙. 크게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외래어 표기법 : ‘television’을 ‘텔레비전’으로 적는 것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적을 것인가를 정해 놓은 규정.
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사랑’을 ‘sarang’으로 적는 것과 같이, 우리말을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정해 놓은 규정.

1. 서로 관계있는 것끼리 줄로 이어 보자.

- |                          |               |
|--------------------------|---------------|
| (1) ‘떨국’이 아니라 ‘국물’로 정한다. | ① 맞춤법 규정      |
| (2) ‘궁물’이 아니라 ‘국물’로 정한다. | ② 표준어 규정      |
| (3) ‘book’은 ‘북’으로 적는다.   | ③ 외래어 표기법     |
| (4) ‘제주’는 ‘Jeu’로 적는다.    | ④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한글 맞춤법 부분은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가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본래의 뜻과 형태가 드러나지 않게 되어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한편 표준어는 현대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서울말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표준어라고 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어형은 아니라는 것을 제시한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언어는 언제나 합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구성원들 사이의 임의적인 약속에 의해 존재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제7차 교육 과정의 국어생활 과목의 핵심 단어가 ‘실천’이라는 것은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국어생활 과목의 이러한 특징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이해 활동과 표현 활동에서의 국어 규범’ 부분이다. 그래서 각 국어생활 교과서는 이 부분을 다양하고 특색 있게 구성하고 있다.

교학사 국어생활 교과서는 표현 활동과 국어 규범 단원에서 ‘당신의 우리 말 실력은?’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철자법, 띄어쓰기, 표준어, 표준 발음’으로 나누어 문제를 풀어보게 구성하였다. 한쪽은 ‘생각 열기’라 하여 힌트를 주고 다른 쪽은 ‘철자법, 띄어쓰기, 표준어, 표준 발음’의 각각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문항은 실생활에서 중요하거나 틀리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학습 활동은 여기에서 푼 문제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문항 수는 총 25개로 철자법과 띄어쓰기는 8문항, 표준어는 5문항, 표준 발음은 4문항이다.

<당신의 우리말 실력은?>

생각 열기	표준어
19) ‘미장이’와 같이 기술자인 경우에는 ‘-장이’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구쟁이’에서처럼 ‘-쟁이’를 붙인다. (표준어 9항)	문19) 우리 마을에는 갓을 만들어 파는 아저씨가 계신다. 그 (갓장이, 갓쟁이) 아저씨는 갓을 잘 만들 뿐 아니라 멋들어지게 쓰고 다니므로 마을 사람들이 (갓장이, 갓쟁이) 아저씨라고 부른다.
표준 발음	생각 열기
문22) 영희의 눈은 티 없는 수정처럼 맑고 맑다(막꼬 막따, 말꼬 말따, 말꼬 막따, 막꼬 말따).	22) ‘리’ 받침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되고, ‘ㄱ’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 앞에서는 ‘ㄱ’으로 발음된다.(표준발음 10, 11항)

(1) 자신의 우리말 실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매우 잘함	20문제 이상 맞함	못함	10~14문제 맞함
잘함	15~19문제 맞함	매우 못함	9문제 이하 맞함

(2) 각 영역별 나의 수준의 어느 정도인가?

영역	수준	영역	수준
철자법	(잘함) 1 2 3 4 (못함)	표준어	(잘함) 1 2 3 4 (못함)
띄어쓰기	(잘함) 1 2 3 4 (못함)	표준발음	(잘함) 1 2 3 4 (못함)

교학사 국어생활 교과서는 ‘표현 활동과 국어 규범’ 부분을 이처럼 다른 교과서와 차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에 대한 조항을 학습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외래어 표기법은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외래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적을까 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을 잘 익혀 두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래 고유 명사 표기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의 문제는 외래 고유 명사를 ‘원지음대로 적을 것인가 아니면 전래의 관용대로 적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 Gandhi 간디    (나) Caesar 시저    (다) Black Sea 흑해  
(라) 老子 노자 / 毛澤東 마오쩌둥 / 豊臣秀吉 토요토미 히데요시  
(마) 東京 도쿄, 동경 / 上海 상하이, 상해

(가)는 인도에서의 발음이 ‘간디’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나)와 (다)는 관용을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라)와 (마)는 중국과 일본의 인명과 지명에 대한 외래어 표기법 설명 부분인데, 현실적인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옛날 중국인은 종전의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현대 중국인은 원지음대로 표기하는 대표적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일본인과 일본 지명의 경우는 시대의 구분 없이 원지음을 따라서 표기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특히 (마)는 현존하는 지명이므로 원지음을 따르지만 관습적인 한자음도 인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는 (라)와 (마)에 대한 내용을 보다 확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사용 지도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안점>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도 역사·문화적인 배경이 작용한다.

<예시답> 역사적으로 문화적인 교류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곧,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왔기 때문에 노자(老子)나 공자(孔子), 두보(杜甫) 등과 같은 중국 사람들을 한자 이름으로 수없이 접해 왔다. 이에 비해 일본과는 문화적인 교류가 그리 많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주는 쪽이었다. 따라서 옛 중국인들은 전래의 한자음으로 적는 것이 필요하지만, 옛 일본인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자음으로 적을 까닭이 없는 것이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것은 제5장에서 다루고 있다. 제5장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다. 이 항목에서는 한글 자모와 로마자 변환표만이 제시되어 있고,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고(송나리 Song Nari)’의 예시와 ‘행정구역 단위는 붙임표를 붙여서 나타내면 된다.(제주도 Jeju-do)’ 정도만 제시하였다. 이 내용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기에는 부족하다. 제4장까지는 현실적인 예와 적절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내용은 지엽적이고 단편적이어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규정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규범에 대한 설명에 비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학사 국어생활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4대 규범에 대해 학생들에게 많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상세한 반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학습의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다양한 예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2) 대한교과서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원’

대한교과서 국어생활 교과서는 ‘올바른 국어 생활’ 대단원 아래에 ‘한글 맞춤법, 표준어와 표준 발음, 단어의 발음과 표기, 문장의 호응’ 등 4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과서는 구성상의 특징에서 학습 내용이 실생

활과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지 않도록 이론 중심의 지식 전달을 지양하고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들을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말과 글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과 감정, 생활상을 담은 소중한 문화이자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것도 제시하였다.

<표 5> 대한교과서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대단원 제목과 내용	소단원 순서와 주요 내용	소단원 구성 요소	단원의 마무리
1. 올바른 국어생활 (단원의 길잡이, 학습 목표, 준비 학습)	(1) 한글 맞춤법 (2) 표준어와 표준 발음 (3) 단어의 발음과 표기 (4) 문장의 호응	(1) 성취 목표 (2) 내용 정리 (3) 바탕 학습 (4) 활동 학습	(1) 자기 진단 (2) 보충·심화

이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규범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우리의 거리에는 외국어 간판이 즐비하고, 컴퓨터 속에서는 맞춤법을 무시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의 자막이나 신문 기사에서도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기가 눈에 많이 띈다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표준어와 표준 발음 등의 규범 학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준비 학습이 제시되어 있는데, 사투리를 표준어로 바꾸어 표기법에 맞게 고쳐 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표준어는 좋은 것이고 사투리는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규범 학습을 시작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는 점도 말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에 관한 내용을 보면 소단원의 제목은 ‘한글 맞춤법’이지만,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주로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내용이 많고,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간단하게 다루고 뒤에 나오는 ‘활동 학습’에서 관련된 문제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글의 표기에 관한 규정이라고 정의한다. 표음주의와 형태주의에 관한 설명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한글 맞춤법의 역사와 분철표기, 연철표기의 예시와 띄어쓰기 등을 소개하면서 국어 규범의 필요성과 한글 맞춤법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바탕 학습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규정을 빈칸 채우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고,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잘못 사용하기 쉬운 단어의 맞는 표현을 찾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표준어와 표준 발음 단원에서는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제1항의 규정을 제시하였고 표준어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표준어의 기능은 통일의 기능, 독립의 기능, 우월의 기능, 준거의 기능으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 단원에서는 특히 한글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한글 맞춤법이 표준어를 글로 적을 때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규정해 놓은 것이라면,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말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가를 규정해 놓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컨대, ‘明’을 뜻하는 국어의 단어를 ‘밝다, 밝고, 밝으니’와 같이 표기하도록 한 것은 ‘한글 맞춤법’에 해당하고, 이것을 ‘박따, 발꼬, 발그니’로 발음하도록 한 것은 ‘표준 발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대한교과서에서는 표준 발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동일하게 표기된 단어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발음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밝다’의 경우는 [박따]로 발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따]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의 경우는 [의사]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으사]나 [이사]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다는 설명이다.

바탕 학습에서는 표준어의 기능을 빈칸 채우기로 확인할 수 있게 했고, 활동 학습에서는 ‘표준어 찾기, 표준 발음 써 넣기’ 등의 활동이 있었다. ‘모듬 과제’는 모듬별로 생활 주변에서 사투리를 조사하여 표준어로 바꾸는 활동이다. ‘단어의 발음과 표기’에서는 규범이 표현뿐만 아니라 이해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국어 규범은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에서 두루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제 꺼예요, 뽀는다, 쏘아, 뽀는다, 쏘런’ 등과 같이 된소리의 잘못된 발음들, 받침의 발음, 모음의 발음 등 표준 발음에 관한 것이 많고, 음운 첨가, 음의 길이 등과 관련된 예도 제시하였다.

한편 위에서 제시한 교과서의 내용들은 표준 발음법 제3장 ‘음의 길이’, 제4장 ‘받침의 발음’, 제5장 ‘음의 동화’, 제6장 ‘경음화’, 제7장 ‘음의 첨가’ 항목들과 관계가 깊다. 그러므로 교과서에는 표준 발음법과 관련된 조항들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표준 발음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래어 표기법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제시한다. 그것은 국어의 외래어 표기는 현용 24자모만을 사용한다는 것, 한 음운은 원칙적으로 한

기호로 적는다는 것, 외래어 표기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 받침에 쓰는 자음은 ‘ㄱ, ㄴ, ㄷ, ㅁ, ㅂ, ㅅ, ㅇ’의 일곱 자만을 쓴다는 것이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설명에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는 원칙만을 제시하고, ‘Guri’, ‘Jongno’ 정도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간략하여 학생들이 두 표기법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한편 ‘활동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외래어 표기와 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익힐 수 있도록 변환해 보는 문제와 맞는 것을 찾는 문제를 위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가족의 이름, 학교 이름, 집 주소’ 등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표기해 보는 활동도 제시하였다.

하지만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 위주로만 두 표기법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교사용 지도서에는 외래어에 대한 개념 설명이 있고, 이관규의 ‘학교 문법론’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여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에만 이러한 내용을 실지 말고 교과서에도 제시하여 학생들이 ‘활동상의 유의점’에 나타난 것처럼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활동상의 유의점>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용례를 통해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표기 원리를 스스로 탐구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언어낸 원리를 어문 규정과 비교함으로써 원리를 내면화시키고 자기 검증을 할 수 있게 지도한다.

### 3) 두산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원’

두산 국어생활 교과서는 대단원인 ‘바른 국어생활’ 아래 ‘우리말 규범의 중요성, 우리말 규범의 이해와 사용’ 등 2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교과서와 달리 ‘우리말 규범’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표 6> 두산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대단원 제목과 내용	소단원 순서와 주요 내용	소단원 구성 요소	기타 활동	단원의 마무리
Ⅲ. 바른 국어 생활 (‘단원의 길잡이’ 속에 대단원의 학습 목표, 내용, 방법, 의의 등을 설명)	1. 우리말 규범의 중요성(표준발음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가?) 2. 우리말 규범의 이해와 사용(문법적 으로 잘못된 말들)	(1) 안내 (2) 바탕글과 바탕글의 이해 활동 (3) 목표 학습 (4) 적용 학습	(1) 탐구 및 토론 (2) 집중적 언 어 활동 (3) 보충/심화	(1) 자기 진단 (2) 보충·심화

단원의 길잡이에서는 4대 규범의 의미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말과 글에 대한 일정한 약속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이 그것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 규정은 나라에서 정한 일종의 규범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언어생활을 바르고 원활하게 안내하는 지침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자신의 언어 습관을 이 규범에 비추어 보고, 더욱 바르고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두산 교과서의 특징은 본문의 내용을 국어학자의 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말 규범의 중요성’ 단원에서는 이현복의 ‘표준 발음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라는 글을 제시하였고, ‘우리말 규범의 이해와 사용’ 단원에서는 남기심의 ‘문법적으로 잘못된 말들’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이현복의 글을 통해 표준 발음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지만, 표준어에 대한 설명은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다. 다만 ‘도움말’이란 이름으로 제시된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도움말> 표준어·맞춤법 규정에 대하여

우리말의 표준어 규정은 일제 강점기인 1936년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에서 처음 만들었다. 그리고 1988년 당시 문교부에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개정했고,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을 만들었다. 그 중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에 다시 개정하였다.

#### <도움말> 조선어학회

1921년 12월 3일 주시경의 문하생 임경재 등 10여명이 조선어연구회를 설립하였고, 1931년 1월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고쳤으며, 1949년 9월 현재의 한글학회로 개칭하였다. 1942년 10월부터 8·15 광복까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학회의 관계자 33인이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옥고를 치르는 수난을 겪었다. 이 학회에서 1933년 확정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오늘날까지 국어표기의 준거가 된다.

도움말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은 우리말 규범이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의 노력에 의해 탄생한 것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알 수 있어 효과적이다. 하지만 특정 학자의 글을 그대로 신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생들이 표준어와 표준 발음에 대한 세부 조항이나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 정리해 본 다음, 학자들의 글은 심화 과정이나 적용의 예로 제시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산 교과서는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보충·심화 항목에서 다루고 있다. 이 교과서는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해서는 ‘(1) 긴 모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2) 짧은 모음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3) 관용적으로 사용된 표기는 존중한다. (4) 파열음 소리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4개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예가 제시되어 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 자모와 로마자를 대응한 표와 표기상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보충·심화 부분에 있는 설명이다.

로마자 표기나 외래어 표기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 표기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매우 불편해질 것이다. <보충·심화>에서는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에 대하여 공부해 보자.

외래어 표기와 국어의 로마자 표기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보충·심화에서만 부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도 한계가 있다. 두 표기법에 대해 학습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언어생활의 불편’이라고만 한 것은 두 표기법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못한 표현이다. 외래어 표기법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역사적 배경과 함께

두 가지 규범을 지키고 배워야 하는 목적을 분명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더욱이 교사용 지도서에는 두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다. 아래의 내용은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나 있는 두 표기법에 대한 ‘보충·심화’의 내용이다.

<보충/심화>에서는 한글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다. 이 두 가지 표기법은 이제까지는 학교 수업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최근에는 일반 국민들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 중, 일상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들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앞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므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 올바른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예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 주고 다시 한 번 써 보도록 한다.

#### 1.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 알아보자.

◎ 자기 집 주소를 다음 <보기>와 같이 로마자로 표기해 보자.

<연구> 모음의 표기, 자음의 표기, 표기상의 유의점을 고려하여 각자 써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2.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 알아보자.

◎ 다음 예문의 밑줄 친 외래어를 바르게 고쳐 보자.

<예시>

· 교과서에 수록된 ‘은전 한 닢’은 마치 한 편의 퐁트처럼 긴밀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 콩트

- 아버지는 회사일로 도쿄에 다녀오셨다. → 도쿄
- 어머니는 주스에 얼음을 넣어 주셨다. → 주스
- 아이 섀도우는 눈매에 색감을 넣어 입체감을 주는 화장을 말한다. → 아이 섀도
- 집 앞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 카페

이것이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내용의 전부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두 표기법의 원리와 역사가 간략하게나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제시하여 교사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학습 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

외래어의 개념을 설명한 교과서 구절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 내용은 보충·심화에서 제시한 외래어에 대한 설명 부분이다.

**외래어란 외국어가 들어와 우리말로 된 말이다. 현재 우리말의 반 이상이 외래어이며, 외래어 가운데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어이다. 최근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모호한 용어 정의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한자어는 중국어의 발음을 토대로 우리말로 굳어진 외래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문법은 국어의 체계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하고 있어 이와 같은 기술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말 규범이라는 단원을 설정하면서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본문에서 단원으로 다룰 내용이지 보충·심화에서 예만 몇 가지 제

시하면서 학습할 성격은 아니다. 그 내용도 규범의 조항을 충실히 제시하면서 설명한 것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표준어와 표준 발음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학자의 글은 있는 그대로 본문의 내용으로 제시해 서는 안 되고, 교과서의 특색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보충·심화’가 아니라 하나의 소단원으로 비중 있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4) 법문사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위’

법문사의 국어생활 교과서는 대단원 ‘바른 국어생활’ 속에 중단원으로 ‘국어생활과 규범, 국어 규범의 실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법문사 ‘국어 규범 단위’ 구성 내용

중단원 제목과 내용	소단원 순서와 주요 내용	소단원 구성 요소	단원 접기	단원접기 이후
1. 국어 생활과 규범	(1) 국어 규범의 기능 (2) 국어 규범의 이해와 표현			
2. 국어 규범의 실천 (학습 목표, 준 비 학습)	(1) 표준어 (2) 표준 발음 (3) 한글 맞춤법 (4)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5) 어법	(1) 짚어보기 (2) 활동	(1) 모둠활동 (2) 자기진단	더 나아가 기

4대 규범에 대한 설명은 ‘표준어, 표준 발음,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어법'의 제목으로 '국어 규범의 실천'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표준 발음은 표준어 설명의 일부분으로 제시하지 않고, 하나의 완전한 소단원으로 설정하여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도 하나의 소단원으로 명시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국어의 규범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언어적 약속을 정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따르도록 한 규범이라고 정의한다. 국어의 규범은 국어에 담긴 일정한 규칙을 체계화함으로써 일상 생활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만든 약속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활동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국어 규범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어 규범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을'이란 글에서는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규범에 어긋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잘못을 자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말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교양 수준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어에 관심을 갖고 언어 규범이나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규범에 어긋나거나 잘 모르는 표현이 있을 때에는 어문 규정집이나 사전에서 정확한 용법을 찾아 바르게 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도 강조한다.

한편 불필요한 내용을 첨가한 것은 국어 규범을 배우는 목적을 반감시킬 수 있다. 학생들이 국어 규범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도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물론 우리가 국어 규범을 정확하게 익히지 않아도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국어 규범에 어긋난 표현은 정확한 의사 전달을 방해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의도적 일탈’에 대한 설명인데, 조지훈의 시는 ‘의도적인 일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이얀, 나빌레라’같은 표현은 규범에는 어긋나지만 부드러운 리듬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학생들의 컴퓨터 통신에서 규범에 어긋난 것은 한편으로는 감각적인 개성을 돋보이게도 하지만, 남용하면 국어 규범의 전체적인 틀을 깨뜨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규범에 어긋난 것’이라는 것과 ‘컴퓨터 통신 언어, 일탈’ 등의 용어가 혼란을 주고 있으며, 오히려 국어의 규범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방해하고 있다. ‘국어 규범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란 제목에서 굳이 문학 작품의 의도적 일탈까지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국어 규범에 대한 교육 내용과 문학 작품에서의 ‘시적 허용’ 문제는 구별해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문사를 비롯한 몇몇 교과서는 김영랑의 ‘오매 단풍 들것네’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방언을 표준어로 바꾸어 쓰면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려는 학습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국어 규범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흥미 위주로만 흐를 수 있고,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도 낮게 볼 우려가 있다. 방언이 들어가 있는 문학 작품에 지나친 비중

을 두어 설명한 것은 학생들이 방언을 표준어보다 하위 개념이나 하찮은 것으로 보기 쉽다. 이것은 국어의 규범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자칫 학생들에게 국어 규범의 중요성보다는 문학 작품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나 방언은 안 좋은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표준어, 표준 발음,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각각 하나의 단원으로 설정하여 ‘국어 규범의 실천’ 속에 포함시켰다. 학생들은 「국어 교과서를 방언으로 쓴다면, 산토끼는 깡충깡충 뿔까 깡충깡충 뿔까, ‘가자’ 먹으러 ‘가자’고?」 등의 재미있는 제목을 통해 흥미를 가질 수 있다.

표준어는 한 나라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공통어의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방언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분리 현상을 막아 주고, 일체감을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다.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언어 규범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언어생활에서는 표준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한다. 국어의 표준어 규정은 ‘발음 변화에 따른 규정’과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규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표준어 규정은 현실적인 언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발음의 변화가 두드러진 것을 새로운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표준어 사정은 일괄 처리할 성질이 아니라 개별 단어 하나하나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귀밑머리, 빈대떡’처럼 방언이 표준어로 인정이 된 예와 ‘녕쿨, 덩굴’, ‘옥수수, 강냉이’처럼 둘 다 널리 쓰여 복수표준어로 인정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법문사의 국어생활 교과서는 이렇듯 다양한 예와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잘 전달해 주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설명은 없고 예만 제시하여 맞는 것을 고르게 하는 것은 국어 규범을 암기하는 것으로 만들기 쉽다. 또한 국어생활 과목이 실제 국어 생활에서의 실천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기본 원리나 개념 학습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문사 교과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표준 발음에 관한 설명이다. 표준 발음은 하나의 완전한 소단원으로 설정하고 자세한 학습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또한 「‘가자’ 먹으러 ‘가자’고?」나 「‘민주주의의 의의’의 발음은」 같은 소재들은 학생들에게 표준 발음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한다.

그런데 ‘활동 학습’의 만화 내용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방언과 표준어와의 차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표준 발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다는 의미는 좋지만, 학생들이 방언을 표준어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거나 완전히 버려야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고, ‘부산에서 살던 뽀리’라고 하여 지역적 편견을 갖게 할 수도 있다.

**<활동 1> 다음은 표준 발음과 관련된 만화이다.**

**장면 1 : 부산에 살던 뽀리가 서울로 전학을 왔다.**

**장면 2 :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서울 학교에서도 텃세가 있었다.**

**장면 3 : “야. 니네들은 ‘어’하고 ‘으’ 발음을 구별 못한다며?”**

**장면 4 : “뽀라꼬?”**

**장면 5 : “정거를 대봐, 정거를!”**

표준 발음법은 사람들이 동일한 단어를 각기 다르게 발음하게 되면 통일

된 언어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정해 놓은 규범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표준 발음법은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대표 조항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성과 합리성 사이에 상충되는 경우, 한쪽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한쪽의 발음을 허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표준 발음법의 제정 의미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글 맞춤법은 어떤 생각을 글로 표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막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규범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의 총칙 제1항을 제시하면서, 이 조항은 우선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이 표준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았다. 맞춤법은 표준어가 정해지면 이를 어떻게 적을지 결정하는 구실을 한다는 설명과 함께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차이도 말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알면 문자 생활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인 ‘소리 나는 대로’와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것을 적절한 예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에서는 외국어와 외래어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다. ‘커피숍? 커피썬?’이란 소제목을 통해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흥미도 유발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말의 외래어 표기법은 원음을 중시하되, 국어의 특성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를 반영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24자모만으로 적고 외

래어는 하나의 음운은 하나의 기호로만, 받침에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을 쓰도록 한다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의 발음을 외국인에게 알릴 때의 규정’이라고 보고, 형태를 밝혀 적는 한글 맞춤법과는 상반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예로 제시한 것이 ‘신라’를 ‘Silla’로 한다는 것과 ‘독립’을 ‘dongnip’으로 표기한다는 정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 다만 ‘활동 학습’에서는 나의 이름, 우리 학교, 우리 집 주소 등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적어 보자는 것을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법문사의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이거나 ‘활동 학습’의 정답만을 제시하는 정도였다. 이것만으로는 교사들에게 충분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없다. 교사용 지도서는 외래어 표기법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학습에 필요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이 직접 비교해 보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5) 블랙박스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위’

블랙박스 국어생활 교과서는 딱딱한 소단원명을 지양하고, ‘표준 발음, 왜 중요한가?’, ‘표준어 사용, 왜 필요한가?’, ‘올바른 맞춤법, 어떻게 익힐까?’, ‘어법에 맞는 말이란?’처럼 흥미를 유발하고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원명을 설정하였다.

<표 8> 블랙박스 ‘국어 규범 단위’ 구성 내용

대단원 제목과 내용	소단원 순서와 주요 내용	소단원 구성 요소	단원의 마무리
4. 규범에 맞는 국어생활 (길라잡이, 학습 목표)	4.1 표준 발음, 왜 중요한가? 4.2 표준어 사용, 왜 필요한가? 4.3 올바른 맞춤법, 어떻게 익 힐까? 4.4 어법에 맞는 말이란?	(1) 활동 목표 (2) 도움말 (3) 생각해 보기 (4) 함께해 보기 (5) 스스로 해보기	(1) 자기 평가 (2) 되짚어 보기 (3) 깊이 생각하 기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내용이나 학습 활동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단원의 길라잡이’에서는 운동 경기의 규칙을 예로 들어 언어 규범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규범에 어긋난 언어 사용이 순간적으로는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상황이 반복된다면 혼란을 주고 화자들 간의 의사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먼저 한글 맞춤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글 맞춤법은 ‘올바른 맞춤법, 어떻게 익힐까?’라는 단원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한글 맞춤법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한글이 표음 문자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리 나는 대로만 쓴다면 같은 단어의 표기가 달리 나타나 글을 읽을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맞춤법은 국어로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원활하게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규범이라고 정의한다. ‘생각해 보기’에서는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준말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주요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제시한 항목은 제11항, 제31항, 제53항, 제40항의 내용으로 각각의 항목을 문제를 통해 익히도록 구성하였다.

표준어 규정과 관련한 내용은 ‘표준어 사용, 왜 필요한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준어의 정의는 제주도 방언을 통한 대화문에서 볼 수 있다. 텔레비전 진행자와 교사가 뉴스나 수업을 제주도 말로 진행한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어로 지정한 것이 표준어라는 것이다.

다음에 제시한 표준어 규정 제7항과 제12항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은 의미가 있다. 교사용 지도서는 ‘숫평’, ‘숫놈’이 아니고, ‘수평’, ‘수놈’이라는 것을 그대로 외우게 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표준어 규정 제7항이 어떤 이유로 정해졌으며, 왜 그렇게 표준어로 삼게 되었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제시한 것은 활동 문제와 교사용 지도서의 설명 부분이다.

### 3. 다음 제시된 활동들을 스스로 해 보자.

❶ ‘수평’, ‘수놈’, ‘수소’, ‘숫양’, ‘숫염소’, ‘숫쥐’는 표준어인데, ‘수닭’, ‘수병아리’는 비표준어이다. 표준어 규정 제7항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정리해 보자.

<교사용 지도서 예시 답안>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였다. 그런데 이 ‘수’는 역사적으로는 ‘슌’이었다. 그래서 뒷말에 ‘ㄱ, ㄷ, ㄴ’이 오면 ‘슌’의 ‘ㅎ’이 이들과 결합하여 각각 ‘ㄱ, ㄷ, ㄴ’으로 실현된다. ‘숫양, 숫염소, 숫쥐’는 예외적으로 ‘숫’을 취한다.

❷ ‘윗넓이’, ‘윗도리’, ‘웃어른’은 표준어인데, ‘윗층’, ‘윗쪽’은 비표준어이다. 표준어 규정 제12항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정리해 보자.

<교사용 지도서 예시 답안>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그런데 뒷말이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하면 ‘위-’로 한다. 이는 된소리나 거

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기로 한 한글 맞춤법 규정을 따른 것이다. 또한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웃돈, 웃어른, 웃웃’과 같은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표준 발음과 관련된 내용은 ‘표준 발음, 왜 중요한가?’라는 단원을 통해 제시하였다. 우리는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거나, 표준 발음을 알지 못하고, 표준 발음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표준 발음에서 벗어난 표현은 상대방에게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또한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으며, 심하면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한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사용, 맞춤법 지키기와 함께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규범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실린 ‘이계진’의 글은 표준 발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 준다. 이 글은 ‘ㄹ’와 ‘ㄱ’ 발음 구별의 중요성, 사회지도급 혹은 ‘스타들’의 올바른 발음 구사 등, 표준 발음에 관한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다.

‘함께 해보기’에서는 학생들이 표준 발음에 맞는 단어를 찾아보거나, 단어의 표준 발음을 직접 써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스스로 해보기’에서는 학생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표준 발음에 어긋난 표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항을 제시한다.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표준 발음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활동 내용이다.

#### <스스로 해보기>

1. 오늘 텔레비전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 또는 연속극을 보고 표준 발음에 어긋난



<표 9> 중앙교육(이)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중단원 제목과 내용	소단원 순서와 주요 내용	소단원 구성 요소	단원의 마무리
1. 국어 생활과 규범 2. 국어 규범의 실천 (미리 생각해보기)	(1) 언어생활과 규범 (2) 국어의 규범 ----- (1) 표준어 (2) 표준발음 (3) 맞춤법 (4) 어법	(1) 이 시간에 학습 할 주요 내용 (2) 스스로 해보기 (3) 익히기 (4) 다지기	(1) 되짚어보기 (2) 한 길 보기 (3) 열 길 보기

우선 ‘언어 규범’, ‘국어 규범’, ‘우리말 규범’ 등의 용어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언어생활과 규범’에서는 통신 언어의 상반된 평가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방언의 예를 들어 표준어 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 규범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생활에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한편 언어 규범은 새로운 표현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는 점과 문화를 축적하고 전승하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국어의 규범 규정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다고 설명하고, 과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외래어 표기법은 ‘슈퍼(슈퍼마켓의 준말)를 수퍼로 비전을 비전으로’라는 정도의 문장만 제시하고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남북 언어 문제는 신문 기사의 남북 조류학자간 대화 내용을 통해 심각성 정도만을 다루고 있다.

본문 내용 후 ‘다지기’에서는 ‘규범’의 정의를 길게 설명한 후 학생들은 ‘일반적 사회 규범’과 ‘언어 규범’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생각할 수 있

고, 이러한 언어 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이야기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과제는 학생들이 해결하기에 힘든 과제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규범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앞서 제시한 현재 인터넷상의 문제점이나 방언과의 내용들로도 학생들은 충분히 국어 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추상적이고 막연한 학습 활동은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므로 실현 가능한 과제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 규범의 실천’에서는 표준어와 표준발음, 맞춤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표준어의 본래 목적은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고, 표준어는 한 나라 말 중에서 표준이 되는 말이면서 정치상·교육상의 공용어라는 설명이다. 본문 중간에 있는 ‘과제’ 활동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비교하여 표준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과제’ 활동에서는 복수 표준어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복수 표준어에 대한 학습은 표준어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학생들이 표준어를 탄력적으로 받아들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표준어 규정을 잘 알고 몇 개의 예외에 주의한다면 어렵지 않게 바른 국어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쓰도록 제정한 공용어이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써야 한다고도 밝히고 있다.

표준 발음법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히 소리의 길이에 대한 설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겹받침 발음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발음은 영어의 발음에 비하

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보고, 단어 하나하나를 잘 익혀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글 맞춤법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문자 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규범이라고 보고 있다. 학생들은 ‘과제’ 활동을 통해 총칙 제1항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용비어천가 제2장의 옛 표기와 현대어 풀이를 비교함으로써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7) 중앙교육진흥연구소(조남현)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원’

중앙교육진흥연구소(조)의 국어생활 교과서는 ‘Ⅱ. 바른 국어생활’ 단원 아래 네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 중앙교육(조)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대단원 제목과 내용	소단원 순서와 주요 내용	소단원 구성 요소	대단원 마무리
Ⅱ. 바른 국어 생활 (대단원 길잡이, 학습목표, 준비학습)	1. 바른 발음과 표기(바른 발음, 바른 표기, 외래어의 표기) 2. 표준어(혼동하기 쉬운 표준어, 표준어와 방언) 3. 바른 높임 표현(높임의 기준, 높임법의 종류, 높임을 표현하는 어휘) 4. 바른 문장 표현(정확한 단어의 사용, 문법에 맞는 문장, 자연스러운 문장)	(1) 학습의 주안점 (2) 수행과제 (3) 기본활동 (4) 심화활동	(1) 나의 점검 (2) 단원을 마치며

이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국어 규범을 배우는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은 국어 규범의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각각의 규범들이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학습하게 된다.

규범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귀찮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일정한 규범이 없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회의 다른 규범들과 마찬가지로 국어 규범도 사회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규범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게 해 준다.

‘공릉’과 ‘태릉입구’를 나타내는 지하철 표지판 사진은 규범들의 유기적 관련성을 잘 설명해 준다. 또한 지하철 표지판 설명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종류의 국어 규범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말을 한글로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가, 나아가 그것을 로마자로는 어떻게 적을 것인가에 관한 규범에 따라 표기된 것이다. 즉 이 교과서는 「‘공릉’으로 적을 것인가 ‘공능’으로 적을 것인가, [태릉]으로 발음해야 하는가, [태능]으로 발음해야 하는가, 이를 로마자로는 ‘Gongneung’으로 적을 것인가 ‘Gongreung’으로 적을 것인가」와 같이 하나의 단어를 통해 여러 가지 규범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어에 관한 규범들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규범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학생들이 4대 규범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국어 규범의 종류 및 유기적 상호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준어가 정해지고, 다음으로 그것이 어떻게 발음되어야 하고 표기되어야 하는가가 정해진다. 나아가서 이 표준어를 로마자로는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한편, 외래어 표기를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 국어의 어문 규정 : 발음에 관한 것(표준 발음법), 표기에 관한 것(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 한글 맞춤법 :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에 관한 규범
- 외래어 표기법 : ‘cake’를 ‘케이크’로 적는 것과 같이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에 관한 규범
- 로마자 표기법 : ‘사람’을 ‘saram’으로 적는 것과 같이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에 관한 규범
- 표준 발음법 : 우리말의 제1장 총칙 제1항에 보면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표준어의 실제 발음에 따라 표준 발음법을 정한다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정하고 있는 의미이다.

표준어에 대한 내용은 ‘(1) 혼동하기 쉬운 표준어, (2) 표준어와 방언’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한 나라의 수도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사람들의 출입이 많아 언어 전파의 힘도 가장 강하므로, 수도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말이 표준어로 제정되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보았다. 표준어 사용은 국민적 통합을 가져온다고 보고, 글로 하는 국어 생활이든 말로 하는 국어 생활이든 표준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혼동하기 쉬운 표준어에서는 표준어 규정 제12항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하

고 있다. 사람들은 ‘윗-’과 ‘웃-’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표준어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의외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표준어는 상당히 인위적으로 정해진 말임을 강조한다. 다만 미흡한 점은 혼동하기 쉬운 표준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데, 특정 부분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수 표준어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고 시대에 맞게 잘 구성하였다. ‘쇠고기’와 ‘소고기’를 모두 인정한 대화문 제시는 복수 표준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수행과제는 복수 표준어의 많은 예를 통해 학습할 수 있게 한다.

방언은 쓰는 것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표준어와 방언을 쓰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표준어는 서울 지역에서 쓰고 있는 방언이 인위적으로 제정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심화 활동에서는 ‘사투리는 문학의 힘찬 젓줄’이란 기사문을 통해, 학생들이 표준어에 대한 비판을 해 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표준어는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되,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생각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남북한의 언어 문제를 신문 기사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표준어와 문화어’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쓰는 말을 ‘문화어’라 하여 표준어로 삼았으며, 남한에서 방언으로 처리하는 단어들이 표준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sup>39)</sup>

---

39) 조남현 외 3인, 『국어생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p.70. ‘남새(채소), 부루(상추), 수태(말이)’ 등을 제시하였다.

표준발음은 ‘바른 발음’이란 제목을 통해 설명한다. 언중들이 ‘ㄱ’와 ‘ㄲ’의 구별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과 소리의 길이가 정확한 단어의 의미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한다. 또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가장 틀리기 쉬운 발음들<sup>40)</sup>과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잘못된 경향을 소개하면서 표준 발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표준발음법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의 설명은 의미가 있다. 교과서의 심화 활동은 표준발음법 제20항<sup>41)</sup>을 주목하게 한다. 학생들은 ‘선릉’이란 지명의 표준 발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며, 제20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은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이다.

제20항의 기본적인 원칙은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발음되지 않는 예들이 있어 ‘다만’이라 하여 단서 조항을 두게 되었는데, 이 단서 조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로 발음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문제이다. 예시한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유형의 단어들이면 된다는 말인지 예시한 단어들만 그렇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후자의 경우라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전자의 경우라면 다음

40) 「부엌이, 부엌을 → [부어기], [부어글]× [부어키, 부어클]○」처럼 잘못된 발음을 「○, ×」로 표시하여 학습하게 구성하였다.

41)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1) 난로[날 : 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 : 할루] 대관령[대 : 팔령]

(2) 갈날[갈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림끼] 할는지[할른지]

[불입] 첫소리 ‘ㄴ’이 ‘ㄷ’, ‘ㅌ’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닿는[달른] 뚫는[뚫른] 할네[할레]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 : 견난] 임진란[임 : 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딤녁] 공권력[공뀐녁]

동원령[동 : 윈녁]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원뇨]

구근류[구근뉴]

과 같은 유형의 단어에 어떠한 것들이 더 포함될 수 있는지가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 중 략 -

국립 국어 연구원에서 간행한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선릉’의 발음이 [설릉]으로 되어 있어 이 단어가 단서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언중들의 실제 언어에서 앞서 ‘태릉’의 발음에 관해 설명하였던 것과 같이, ‘능(陵)’이 국어에서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아서 어두가 아닌 위치에서도 [능]으로 발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교사는 학생들에게 규범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하라는 식의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교과서는 표준 발음법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빗겨가지 않고 있다.

외래어 표기 설명은 여러 조항을 나열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외래어를 언중들이 어떻게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가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듀얼 케이크, 케익전문, 케익을 맞춰’ 등의 문구가 있는 그림을 보고 올바른 외래어 표기가 어떤 것인지 찾게 된다. 또한 외래어 표기는 가능한 원음을 살려 적는다는 원칙과 그것이 우리말에 들어온 이상 우리말의 규칙 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중요한 사항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커피슌, 디스켈’이 아닌 ‘커피숍, 디스켓’으로 적는다는 설명이다. 학생들이 이 단어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붙여 보면, 학생들은 ‘[커피숍+이=커피소비], [디스켓+을=디스케슬]’처럼 발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설명은 학생들이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학생들은 그것이 우리말의 규칙 체

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외래어의 표기법은 본문에서 학습할 수 있으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심화활동의 하나의 문제로만 제시하여 중요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단,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교과서 뒷면 부록에 전문을 실어 놓았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심화 활동’의 하나의 문제로만 제시하고 있다. 심화 활동의 문제는 다양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ㄱ, ㄷ, ㅂ, ㄴ’을 ‘g/k, d/t, b/p, r/l’로 어떻게 구별하여 적는지 정도만을 묻고 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하나의 단원으로 설정하여 외래어 표기법과 비교하면서 학습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8) 지학사(박갑수)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원’

지학사(박)의 국어생활 교과서는 ‘Ⅱ. 바른 국어생활’ 대단원 아래에 ‘1. 국어 규범 지식’과 ‘2. 국어 규범의 사용’ 두 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어 규범 지식 단원은 ‘(1)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언어, (2) 국어 규범의 올바른 이해’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어 규범의 사용 단원은 ‘(1) 이해 활동과 국어 규범의 사용, (2) 표현 활동과 국어 규범의 사용’ 등 두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의 길잡이는 우리가 언어 규범을 학습할 때는 관습적인 규범과 성문화한 규범에서 다루는 한두 가지를 아는 데 그치지 말고, 다양한 실제 상황에 그 규칙을 적용해 보는 활동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표 11> 지학사(박)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중단원 제목과 내용	소단원 순서와 주요 내용	소단원 구성 요소	단원의 마무리
1. 국어 규 범 지식 2. 국어 규 범의 사용 (활동 목표, 단원의 길잡 이, 들어가기 전에)	(1)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언어 (국어의 다양한 규범, 언어 규범의 합리성, 규범 준수 태도의 중요성) (2) 국어 규범의 올바른 이해 (한글 맞춤법의 주요 규정, 표준어 규정의 주요 규정, 외래어 표기법의 주요 규정, 로마자 표기법 의 주요 규정) ----- (1) 이해 활동과 국어 규범의 사용(이해 활동과 국어 규범의 필요성, 적용된 규범과 의미 차이, 의 도적인 일탈 표현의 의미 추론) (2) 표현 활동과 국어 규범의 사용(표현 활동과 국어 규범의 적용, 발음의 주요 오류, 어휘 사용의 주요 오류, 문법과 문장의 주요 오류, 의도적인 일 탈 표현 생산하기)	(1) 앞소리 (2) 탐구활동 (3) 정리활동 (4) 보충·심 화 활동	세부 항목 없음

지학사 교과서는 국어의 성문화한 규범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의 4대 규정이 있다고 보았다. 4대 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한글 맞춤법은 철자법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문자 생활의 기준이다.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의 사정 기준과 표준 발음법을 제시한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의 표기법을,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법을 규정한 것이다.

학생들이 언어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관습적 규범이나 성문화한 규범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언어의 규범이 통일되지 않으면

언어활동에 많은 혼란과 장애가 따르게 된다고 하면서,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문제와 제주도 방언의 예를 들고 있다. 표준어를 강조하는 것은 화자의 언어생활을 제한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마땅히 감수해야 할 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불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나 혼란을 극복하게 해 주는 생산적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밝힌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남북한의 언어 문제는 보충이나 심화 학습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이 교과서는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 학생들은 ‘탐구 활동’을 통해 심화된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다음에 제시한 질문 방식은 이 교과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은 책이오.’가 맞을까, ‘이것은 책이요.’가 맞을까?

‘깨끗이’가 맞을까, ‘깨끗히’가 맞을까?

‘서비스’가 맞을까, ‘씨비스’가 맞을까?

‘Ch’ungju’가 맞을까, ‘Chungju’가 맞을까?

한글 맞춤법은 제1항의 대원칙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결형에 사용하는 어미, 사이시옷과 사이시옷의 제한, 부사의 끝 음절에 오는 ‘이’와 ‘히’의 문제 등이다. 학생들이 많이 틀리거나 혼동하기 쉬운 것들을 제시하여 한글 맞춤법 학습에 도움을 준다.

표준어 규정은 ‘실제 언어 현실’을 반영한 표준어 규정에 주목하여 설명한

다. 복수 표준어는 설명이 없고 ‘복수 표준어’란 단어만 제시하였다. 표준 발음은 전반적인 설명이 없다. 다만, 첫 음절의 장음이 첫 음절이 아닌 경우에는 단음이 된다는 예와 ‘연구개음화, 양순음화’ 같은 동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넷가[내 : 까/넛까]처럼 사이시옷이 붙어 뒷음절의 첫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경우,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규정 정도만 제시하였다. 표준어 규정은 주로 국어생활의 현실을 대폭 수용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은 제1항부터 제3항의 항목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가 부족하다. 그 내용은 7개의 자음만을 받침으로 쓰는 이유와 ‘써비스, 써클, 쉐미나’는 ‘서비스, 서클, 세미나’로 써야한다는 정도로, 학생들이 외래어 표기법을 깊게 이해할 수 없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로마자 표기법’이란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1항과 제2항의 항목은 구체적 설명이 없으며 항목 자체만 제시하였다.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도 다양하고 심화된 내용은 다루고 있지 못하고, ‘탐구 활동’란에 ‘인천공항’의 세 가지 표기를 제시하여 올바른 것을 찾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두 표기법에 대한 부족한 설명은 ‘정리 활동’을 통해 보충해 볼 수는 있으나, 정리 활동의 내용도 단편적이어서 충분한 학습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먼저 교과서는 두 표기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목적을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표기법 조항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표기하고 정한 이유가 설득력 있게 나타나 있어야만 한다. 학습 활동은 이러한 기본적 사항을 통해 학생들이 단

편적으로 표기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교사용 지도서도 부족한 면이 보인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탐구 활동이나 정리 활동에 대한 정답 정도만 제시되어 있지, 두 표기법의 목적이나 배경, 논란이 되는 항목, 영어 이외의 단어에 대한 표기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국어 규범은 표현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해의 상황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이해 활동과 국어 규범의 사용’ 단원을 통해 이해 활동과 국어 규범의 필요성, 적용된 규범과 의미 차이, 의도적인 일탈 표현의 의미 추론 등의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표현 활동과 국어 규범의 사용’ 단원을 통해서도 표현 활동과 국어 규범의 사용, 발음의 주요 오류, 어휘 사용의 주요 오류, 문법과 문장의 주요 오류, 의도적인 일탈 표현 생산하기 등의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규범에 어긋나게 표현하는 경우도 학습하게 된다. 이것은 창조적 표현인 경우가 많으며 바른 규범에 비추어 보아야 그 의미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해석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탈된 표현은 문학에서 많이 활용한다고 하고 수사적인 창조와 규범의 일탈을 제시하였다.

## 9) 지학사(심재기)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원’

지학사(심)의 국어생활 교과서는 ‘국어 규범의 이해와 실천’ 대단원 아래에 ‘국어 규범 지식’과 ‘국어 규범의 사용’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의 규범은 혼란을 방지하고 국어의 운용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약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어 규범은 이러한 약속이므로 우리말과 글을 쓰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표 12> 지학사(심)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중단원 제목과 내용	소단원 순서와 주요 내용	소단원 구성 요소	단원의 마무리
1. 국어 규범 지식 2. 국어 규범의 사용 (학습목표, 먼 저 읽기, 생각 열기)	1. 국어 규범의 기능 2. 국어의 중요 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1. 이해 활동과 국어 규범 2. 표현 활동과 국어 규범	(1) 생각해보기 (2) 생각기르기 (3) 생각나누기	(1) 생각 정리 하기 (2) 보충·심화

4대 규범은 ‘우리 국어에서는 한글 표기와 띄어쓰기를 포함하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와 표준 발음법을 포함하는 표준어 규정,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외래어 표기법, 우리말을 로마자로 적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그것이다.’라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범이 정해진 이유는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다고 보고, 일상의 잘못된 예를 통해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국어의 규범은 통제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산의 구실도 한다고 보고, 국어 규범을 정확하게 익히고 준수할 것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학습 자료실에는 4대 규범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다. 한글 맞춤법은 한글을 어법의 규정에 맞도록 적는 법칙으로 현재의 맞춤법은 1933년에 조선어

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개정하여 문교부가 1988년 1월에 확정 고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 사정의 원칙과 표준 발음법을 체계화한 규정으로 1936년 조선어학회에서 사정, 공포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크게 보완하고 체계화하여 1988년 1월에 문교부가 고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우리나라의 자모인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현행 표기법은 1958년 제정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개정하여 문교부가 1986년 1월에 고시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의 지명, 인명 등을 로마자로 적는 법칙으로 1984년에 처음 고시되었고 2000년 7월 7일에 개정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학사 국어생활 교과서는 역사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학생들이 4대 규범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4대 규범이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4대 규범의 내용이 ‘국어의 중요 규범’ 단원과 ‘표현 활동과 국어 규범’ 단원의 일부분으로 이원화되어 체계의 혼란을 준다.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를 밝힌 표기에 대한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원형을 밝혀 적느냐, 소리 나는 대로 적느냐’의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으며, 형태가 비슷한 단어들을 제시하여 구별하여 말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어는 한 나라의 여러 방언 중에서 임의로 정한 공통어로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언어라고 하고, 표준 발음법에서는 ‘소리의 길이’와 ‘받침의 발음’에 관한 예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에서는 외래어에 대한 정의를 주목할 만하다. 외래어는 국어가 빌려 쓰고 있는 다른 언어의 단어이며,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사람들 사이에 익히 쓰여 국어화한 말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우리가 외래어를 우리 표기법에 맞게 쓰는 원칙을 정한 것이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에서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부분은 교사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보다는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답이나 학자의 글 소개로 그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어느 범위까지 어떤 형태로 배워야 한다는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어생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세부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명확한 내용을 찾기가 힘들었다.

외래어 표기법 제3항에 대한 지학사 교과서와 ‘이희승·안병희’의 설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지학사 교과서에서는 제3항에 대한 ‘항목과 예’만 제시했는데, ‘이희승·안병희’의 설명은 ‘커피슌’이 아니라 ‘커피숍’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ㅍ’이 아니라 ‘ㅂ’으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추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조사를 붙여서 발음해 본다.’라는 간단한 설명 추가로 제3항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③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이는 외래어를 적기 위해 7자음 이외의 자음(ㄷ, ㅈ, ㅊ, ㅋ, ㅌ, ㅍ, ㅎ)을 받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라 ‘오프셸’이 아니라 ‘오프셋’으로, ‘디스켈’이 아니라 ‘디스켓’으로 표기해야 한다.

①에서 ‘커피숍’은 ‘커피숍’으로, ‘디스켓’은 ‘디스켓’으로 적어야 한다. 외래어의 받침 표기에 ‘ㅍ’이나 ‘ㅌ’받침은 쓰지 않기 때문이다.<sup>42)</sup>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이를테면 제2항의 설명에서 든 ‘shop’을 ‘숍’으로 표기하는 것은 ‘커피숍에 간다.’고 하지 ‘커피숍에 간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국어의 음절말 자음과 본음에 제시된 받침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국어의 음절말 자음으로는 ‘ㄷ’이 있으나 ‘ㅅ’은 없다. 그러나 외래어의 표기에서는 ‘ㅅ’은 인정하나 ‘ㄷ’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인 ‘오프셋(offset)’의 받침 ‘ㅅ’이 그러하다. 여기서 받침 ‘ㅅ’은 실제 발음이 ‘ㄷ’인 점으로 보나 영어의 음운이 ‘ㄷ’인 점으로 보나 ‘ㄷ’으로 함이 합리적인 듯이 보인다. 그런데 이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이, 을, 은’ 등을 붙여 보면 ‘ㅅ’으로 실현된다. 국어의 ‘낮, 빗’ 등의 받침 ‘ㅅ’이 발음으로는 ‘ㄷ’이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앞에서는 ‘ㅅ’으로 실현되는 현상과 똑같다. 따라서 외래어의 경우에는 음절말에 ‘ㄷ’으로 나는 소리는 모두 받침 ‘ㅅ’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요컨대 본항의 받침은 표기에 관한 것이고, 발음에 관한 것이 아니다.<sup>43)</sup>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2002년 7월 7일 개정된 것이 과거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소개한다. 학생들은 ‘생각 기르기’의 예를 통해 배운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모두 정답을 알게 하거나 익히는 수준이다. 교과서에서는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2) 심재기 외 3인, 『국어생활』, 지학사, 2003, p.63, p.77.

43) 이희승·안병희, 『새로 고친 한글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2005, pp.308~309.

한편 ‘국어 규범의 사용’ 단원의 설명 중에 혼란을 주는 것이 있다. ‘이해 활동과 국어 규범’에서는 ‘누네띠네→눈에 띄네, 마니커→많이 커, 마쫂니→맛 좋으니’처럼 발음을 근거로 변조해서 표기한 예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할 표기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표현 활동과 국어 규범’에서는 ‘도우미, 으뜨미 쌀, 부르미 택배’ 등의 예를 들면서, 의도적으로 규범에서 일탈한 표현을 만들어 특정한 표현 효과를 주기도 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도 이 부분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다.

<지도 방법> 의도적으로 규범에서 일탈한 표현을 만들어 특정한 표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예시 답안> ‘으뜨미’는 ‘사물의 차례에서 맨 첫째 또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일’을 나타내는 ‘으뜸’이라는 단어에 접미사 ‘-이’가 붙은 ‘으뜸이’를 발음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따라서, ‘으뜨미 쌀’은 ‘가장 좋은 쌀’이라는 의미를 연상시킨다. ‘부르미’는 ‘국가나 초월적 존재, 윗사람 등이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르는 것’을 나타내는 ‘부름’이라는 단어에 접미사 ‘-이’가 붙은 ‘부름이’를 발음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부르미 택배’는 ‘소비자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간다’는 의미를 연상시킨다.<sup>44)</sup>

‘일탈된 표현’이라는 공통된 내용이 ‘이해 활동’과 ‘표현 활동’이라는 다른 영역에서 한 가지는 경계해야 할 표기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표현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정반대의 의견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학생들이 국어 규범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

44) 심재기 외 3인, 『국어생활 교사용 지도서』, 지학사, 2001, p.111.

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구성이 요구된다.

‘표현 활동과 국어 규범’에서는 표준 발음과 맞춤법에 맞는 표기의 예를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고,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 표기의 예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개정 전후의 표기 예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방언과 남북의 언어 문제는 ‘심화 문제’에서 간단히 다루고 있다.

### 10) 천재교육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원’

천재교육의 국어생활 교과서는 ‘바른 국어생활’ 단원 아래에 ‘국어 규범 지식’과 ‘국어 규범의 사용’이란 두 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의 길라잡이는 어문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야구나 축구 등의 운동 경기의 규칙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13> 천재교육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중단원 제목과 내용	소단원 순서와 주요 내용	소단원 구성 요소	단원의 마무리
1. 국어 규범 지식 2. 국어 규범의 사용 (미리 짚어보기)	(1) 국어 규범의 기능 이해 (2) 국어의 중요 규범 ----- (1) 국어 규범과 이해 활동 (2) 국어 규범과 표현 활동	(1) 학습 활동	(1) 다지기 (2) 넓히기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같은 어문 규정은 당위나 강제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말은 곧 정신이며 현재 우리말의 심각한 오염 실태는 우리 정신의 황폐화와 타락을 보여 주는 징후라고 하여 기본적인 국어 규범의 이해와 실천을 통해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어의 중요 규범’ 단원에서는 국어 규범에 관한 설명이 있다. 국어의 규범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이 있는데, 한글 맞춤법에는 소리, 형태에 관한 것과 띄어쓰기가 포함되며, 표준어 규정에는 발음의 변화와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규정이 있다고 한다. 또한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각각 외래어를 우리말로 나타내는 규칙과 우리말을 외래어로 표기하는 규칙을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산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는 학자들의 글을 통해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었다. 4대 규범에 대한 내용은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되지 않아,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

한글 맞춤법은 제1항의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에 대한 설명과 제2항의 띄어쓰기 원칙만을 제시하였다. 한글 맞춤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나 한글 맞춤법을 익혀야 하는 목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아쉬움을 준다.

표준어 규정과 관련한 내용은 이승재의 ‘표준어의 개념’이란 글을 통해 설명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 학자들의 글은 학생들보다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승재의 글 속에는 표준어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고, 그 글은 구체적인 예도 들어 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학자들의 글은 본문이 끝난 다음에 학습 활동과 연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표준 발음법에 대한 설명은 이관규의 ‘우리말을 올바르게 표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란 글을 통해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표준 발음법에 나타난 전통성, 합리성과 관련한 사례를 생각해보고 찾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몇 개의 문장을 통해 표준 발음에 맞는 발음을 해 볼 수 있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말로 적는 방법이라고 하고,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의 내용인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외래어와 국어의 정확한 대응 표기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제기하고 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외래어 표기법과는 반대로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한글 자음과 로마자의 대응 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 표지판을 제시하였는데, 도로 표지판의 사진은 로마자로 행정구역을 어떻게 표기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모두 단편적인 설명과 예시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이 깊이 있게 학습하기는 어렵다.

한편 교과서의 첫 면에는 본문 내용과 관련 있는 사진들이 있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잘 살려 쓴 이정표들’이라는 제목의 표지판이다. 그런데 ‘슬기 1로, 찬들길, 바른삶 길’이 ‘Sŭlgi 1-ro, Ch’andŭl-gil, Parŭnsam-gil’로 표시되어 있다. 반달 표시와 어긋점<sup>45)</sup>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세심한 교과서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45) 김홍규 외 2인, 『국어생활』, (주)천재교육, 2002. ‘2쇄 발행일’은 ‘2007년 3월 1일’이다. 본 논문은 2007년 2쇄 발행 교과서를 참고로 하였다.

### 11) 케이스 국어생활 ‘국어 규범 단원’

케이스의 국어생활 교과서는 대단원 ‘정확한 국어생활’ 아래에 ‘국어의 규범’과 ‘정확한 말과 글’의 두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4> 케이스 ‘국어 규범 단원’ 구성 내용

대단원 제목과 내용	소단원 순서와 주요 내용	소단원 구성 요소	마무리하기
3. 정확한 국어 생활 (단원의 길잡이, 단원을 배우기 전에, 학습 목표)	(1) 국어의 규범 (규범의 중요성, 국어의 중요 규범) (2) 정확한 말과 글 (정확한 단어, 정확한 문장, 정확한 글)	(1) 학습 목표 (2) 생각하기 (3) 스스로하기 (4) 함께하기	(1) 되짚어 보기 (2) 다지기 (3) 한 걸음 더

문자 언어는 기본적으로 말을 글로 적는 것인데,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을 수가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정해 두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고, 음성 언어를 문자로 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많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우리말은 소리 나는 대로만 적을 수 없으며, 그 뜻을 밝혀 적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문자 언어는 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눈을 위한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쓸 때에는 편리하지만, 읽을 때에는 큰 혼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예와 설명은 학생들이 규범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교과서의 특징은 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다른 교과서는 외국도 규범이 철저하다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케이스 국어생활 교과서

의 경우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한국어의 맞춤법만이 어렵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한국어의 맞춤법만 유독 어려운 것은 아니다. 문자 생활에서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어느 언어에나 있다. 수년 전 미국의 어느 부통령은 ‘tomato’를 ‘tomatoe’라고 써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고, 영어 사전에는 ‘database’처럼 붙여 쓴 사전이 있는가 하면 ‘data base’처럼 띄어 쓴 사전도 있다. 또 미국의 주 이름 중 ‘Kansas’는 ‘캔자스’라고 읽지만 그 앞에 ‘ar’이 붙은 ‘Arkansas’는 ‘아칸소’라고 읽는다. 이와 같이 영어의 맞춤법 역시 만만치 않다.

‘스스로 하기’ 활동에서는 강제로 ‘○, ×’를 고르게 하지 않고,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배려해 주고 있다. 이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규범을 지켜야 할 경우만 강제하지 않고,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묻는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여 자연스럽게 규범을 지키도록 유도한 것이다.

‘국어의 중요 규범’에서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규정, 새 로마자 표기법 규정’이란 제목을 두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다루고 있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설명이 있다. 표준어 규정에서는 제1항에 대한 설명만 있다. 외래어 표기법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시하였고, 로마자 표기법 규정은 네 가지 항목에 대해 간단한 내용만 제시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스스로 하기’와 ‘함께 하기’에서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 인명과 지명, 일

본 인명과 지명 표기에 관한 내용은 학생들이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의 인명과 지명에 대한 활동에서는 ‘西安, 吉林, 洛陽, 毛澤東, 鄧小平’에 대한 외래어 표기가 ‘시안, 지린, 뤼양, 마오쩌둥, 덩샤오핑’으로 되는지, ‘서안, 길림, 낙양, 모택동, 등소평’으로 되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일본의 인명과 지명에 대한 활동에서는 ‘東京, 大阪, 豊臣秀吉, 田中’에 대한 표기가 ‘도쿄, 오사카,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나카’로 되는지, ‘동경, 대판, 풍신수길, 전중’로 되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인명과 지명 표기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만 있어 아쉬움이 있다. 앞서 살펴 본 교학사 교과서처럼 외래어 표기법 규정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나타나 있어야 학생들이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나, 일본은 오히려 우리가 영향을 주는 쪽이어서 일본 인명과 지명이 익숙하지 않다는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3. 국어생활 교과서의 영역별 특징 비교

이상과 같이 일반 선택 과목인 국어생활 교과서 내에서 국어 규범 단원이 어떤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국어 규범 단원이 교과서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국어생활 교과서를 통해 검토한 내용은 표로 정리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11종 교과서의 ‘학습 목표’, ‘4대 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4대 규범의 내용’, ‘교과서 부록’, ‘방언, 복수표준어, 남북 언어 관계’ 등이다. 먼저 각 교과서의 단원별 학습 목표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학습 목표는 단원을 공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다. 학습 목표는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고, 학습 목표가 국어 규범의 학습 내용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표 15> 단원별 학습 목표 제시 여부와 명칭<sup>46)</sup>

단원구성 요소	교과사	대한 교과서	두산	법문사	블랙박스	중앙 교육(이)	중앙 교육(조)	지학사(박)	지학사(심)	천재 교육	케이스
대단원 학습목표	학습 목표	학습 목표	학습 목표	제시 안함	제시 안함	학습 목표	학습 목표	제시 안함	학습 목표	학습 목표	학습 목표
중단원 학습목표	◆	◆	◆	학습 목표	◆	제시 안함	◆	활동 목표	학습 목표	제시 안함	◆
소단원	학습 목표	학습 목표	성취 목표	제시 안함	제시 안함	활동 목표	제시 안함	제시 안함	제시 안함	제시 안함	학습 목표
	유사 방식	없음	없음	학습할 내용	질어 보기	없음	이 시간에 학습할 주요 내용	학습의 주안점	없음	없음	중요 어구

‘◆’ 표시는 단원 구성 요소가 없는 체제를 나타냄.

대단원의 학습 목표는 여러 학습 목표 중에서도 더욱 중요하다. 대단원 학습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교과서가 있었으며, 학습 목표가 제시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소단원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가 많았다. 학습 목표는 국어 규범의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하며, 각 단원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6) ‘학습 목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도 제시하였음. 11종 국어생활 교과서 ‘학습 목표’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윤진미를 참조할 것. 김진영의 표를 재작성 하였다.

<표 16> 대단원 학습 목표

대단원 학습 목표	
교학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범의 기능을 알고, 국어의 규범을 익힌다.</li> <li>2. 국어 규범을 적용하여 바르게 표현하고 이해한다.</li> <li>3. 규범에 맞는 국어생활을 하려는 태도를 갖는다.</li> </ol>
대한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규범의 기능을 이해한다.</li> <li>· 국어의 중요 규범을 익힌다.</li> <li>· 국어의 이해 활동에서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한다.</li> <li>· 국어의 표현 활동에서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한다.</li> </ul>
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말 규범의 기능을 이해한다.</li> <li>· 우리말의 중요 규범을 익힌다.</li> <li>· 이해 활동에서 우리말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한다.</li> <li>· 표현 활동에서 우리말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한다.</li> </ul>
법문사	· 제시하지 않음.
블랙박스	· 제시하지 않고, ‘들어가기 전에’란 항목 있음. <sup>47)</sup>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생활에서 규범의 중요성과 기능을 안다.</li> <li>· 국어의 여러 규범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국어생활을 한다.</li> <li>· 국어 규범에 맞는 바른 국어생활을 하려는 태도를 갖는다.</li> </ul>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어 규범의 필요성 및 기능을 알고 규범 간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한다.</li> <li>2. 일상 국어생활에서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li> <li>3. 높임 표현 사용의 원리를 알고 일상 생활에서 바른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li> <li>4. 바른 문장의 요건을 알고 잘못된 문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li> </ol>
지학사 (박)	· 제시하지 않음.
지학사 (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규범의 기능을 이해하고 중요 규범을 익힌다.</li> <li>· 국어의 이해 및 표현 활동에서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한다.</li> </ul>
천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 국어생활의 개념을 알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li> <li>·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의 기본적인 규범을 익혀서 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다.</li> <li>· 국어 이해와 표현 활동에서 국어의 여러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li> </ul>
케이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규범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안다.</li> <li>2. 국어의 중요한 규범들과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li> <li>3. 정확한 단어 사용의 중요성을 알고, 단어를 정확하게 쓰기 위해 노력한다.</li> <li>4. 정확한 문장 사용의 중요성을 알고, 문장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 노력한다.</li> <li>5. 글을 정확하게 구성하기 위한 요건을 알고, 이에 따라 내용을 조직한다.</li> </ol>

47) 들어가기 전에는 질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❶ 어느 것이 표준어이고, 맞춤법이나 어법에 맞는 표현인지 몰라 당황했던 적은 없는가? ❷ 맞춤법이나 어법에 어긋난 표현을 대하고서 불쾌한 느낌을 가진 적은 없는가? ❸ 표준어나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왜 그렇게 정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적은 없는가?’

<표 17> 중단원 학습 목표

	중단원 학습 목표
교학사	· 중단원 체제 아님.
대한 교과서	· 중단원 체제 아님.
두산	· 중단원 체제 아님.
법문사	<p>&lt;국어 생활과 규범&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규범의 기능을 이해한다.</li> <li>· 국어의 이해 활동에서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한다.</li> <li>· 국어의 표현 활동에서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한다.</li> </ul> <p>&lt;국어 규범의 실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규범의 종류를 안다.</li> <li>· 국어 규범의 원리를 이해한다.</li> <li>· 국어 규범을 익혀 바른 국어 생활을 하려는 태도를 갖는다.</li> </ul>
블랙박스	· 중단원 체제 아님.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이)	· 제시하지 않고, ‘미리 생각해 보기’란 항목 있음.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조)	· 중단원 체제 아님.
지학사 (박)	<p>&lt;국어 규범 지식&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규범의 기능을 이해한다.</li> <li>· 국어의 중요 규범을 익힌다.</li> </ul> <p>&lt;국어 규범의 사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의 이해 활동에서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한다.</li> <li>· 국어의 표현 활동에서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한다.</li> </ul>
지학사 (심)	<p>&lt;국어 규범 지식&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규범의 기능을 이해한다.</li> <li>· 국어의 중요 규범을 익힌다.</li> </ul> <p>&lt;국어 규범의 사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이해 활동에서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한다.</li> <li>· 국어 표현 활동에서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한다.</li> </ul>
천재교육	· 제시하지 않음.
케이스	· 중단원 체제 아님.

<표 18-1> 소단원 학습 목표Ⅰ

소단원 학습 목표(유사 방식 포함)	
교학사	<p>&lt;규범의 기능&gt;                      · 언어의 규범적 특성을 이해한다. · 언어 규범이 갖는 기능을 이해한다.                      · 언어 규범을 익혀 바르게 쓰려는 태도를 갖는다.</p> <p>&lt;국어의 규범&gt;                      · 국어 규범의 종류를 안다. · 국어 규범의 원리를 안다.                      · 일상의 생활 속에서 국어 규범을 익혀 바르게 적용하려는 태도를 갖는다.</p> <p>&lt;표현 활동과 국어 규범&gt;                      · 국어의 규범을 익힌다. · 규범적 지식을 적용하여 바르게 표현한다.                      · 규범에 맞는 표현을 하려는 태도를 갖는다.</p> <p>&lt;이해 활동과 국어 규범&gt;                      · 이해 과정에서 규범적 지식이 필요함을 안다.                      · 규범적 지식을 활용하여 말이나 글을 효율적으로 이해한다.                      · 규범적 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려는 태도를 갖는다.</p>
대한 교과서	<p>&lt;한글 맞춤법&gt;                      ·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기능을 알고 국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 국어 규범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p> <p>&lt;표준어와 표준 발음&gt;                      · 표준어의 개념과 기능을 알고, 국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익혀 실제 언어생활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p> <p>&lt;단어의 발음과 표기&gt;                      · 단어 수준에서 바르게 표기하고 발음할 수 있다.                      · 규범에 맞게 발음함으로써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p> <p>&lt;문장의 호응&gt;                      · 각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잘 이루어지도록 표현할 수 있다.                      · 문장 안에서 높임법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p>
두산	<p>&lt;우리말 규범의 중요성&gt;                      · 우리말 규범의 기능 · 표준어와 표준 발음</p> <p>&lt;우리말 규범의 이해와 사용&gt;                      · 표준어, 맞춤법의 원리 · 표준어, 맞춤법의 중요 규정</p>
법문사	<p>· ‘짚어보기’란 용어로 유사하게 제시함.</p>
블랙 박스	<p>&lt;표준 발음, 왜 중요한가?&gt;                      (1) 표준 발음 사용의 중요성을 안다.                      (2) 혼동하기 쉬운 발음을 알고, 국어생활에서 표준 발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p> <p>&lt;표준어 사용, 왜 필요한가?&gt;                      (1) 표준어의 기능과 사용의 중요성을 안다.                      (2) 표준어를 알고 이를 국어생활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p> <p>&lt;올바른 맞춤법, 어떻게 익힐까?&gt;                      (1) 맞춤법 규정의 원칙과 바른 표기를 안다.                      (2) 맞춤법에 맞는 표기로 글을 쓸 수 있다.</p> <p>&lt;어법에 맞는 말이란?&gt;                      (1) 문법적인 표현과 비문법적인 표현을 구분할 수 있다.                      (2) 어법에 맞도록 글을 쓸 수 있다.</p>

<표 18-2> 소단원 학습 목표<sup>2)</sup>

소단원 학습 목표(유사 방식 포함)	
중앙교육 진흥 연구소 (이)	<언어생활과 규범> · 언어 규범의 기능 · 규범에 맞는 언어생활의 필요성 <국어의 규범> · 국어 규범의 구성 요소 · 국어 규범에 대한 바른 태도 <표준어> · 표준어 사용의 필요성 · 표준어에 의한 국어생활 <표준 발음> · 표준 발음법 · 표준 발음법에 맞는 국어생활 <맞춤법>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 한글 맞춤법에 맞는 국어생활 <어법> · 국어의 주요 어법 · 어법에 맞는 국어생활
중앙교육 진흥 연구소 (조)	<바른 발음과 표기> · 국어 규범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그 기능을 이해한다. · 표준 발음법을 익혀 바르게 발음한다. ·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 생활에 적용한다. <표준어> · 국어생활에서 표준어 사용의 중요성을 안다. · 표준어를 익히고 이를 일상 생활에 적용한다. ·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바른 높임 표현> · 국어생활에서 높임 표현의 중요성을 안다. · 높임 표현 사용의 원리를 익힌다. · 일상 생활에서 바른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바른 문장 표현> · 바른 문장의 요건을 안다. · 잘못된 문장들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 자신이 쓴 문장을 살펴보고 바르게 고친다.
지학사 (박)	· 제시하지 않고, ‘앞소리’란 항목이 있음. <sup>48)</sup>
지학사 (십)	· 제시하지 않음.
천재교육	· 제시하지 않고, ‘중요 어구’란 항목 있음. <sup>49)</sup>
케이스	·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소단원에서 그대로 제시함.

둘째, 국어 규범의 전반적 내용이 각 교과서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

48) 소단원 ‘(1)사회적 약속으로서의 언어’의 ‘앞소리’ 예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도로 표지판이 나도 모르게 반대로 바뀌어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와 비슷하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회 속에 내가 서 있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서 국어 규범의 중요성을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다.

49) ‘(1) 국어 규범의 기능 이해’ 단원의 경우 ‘통일된 약속, 원활한 의사소통, 효과적이고 바른 국어생활’을 제시하였다.

펴보았다. 4대 규범이 있다는 사실은 잘 보여주고 있었지만, 국어 규범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에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제각각 기술되어 있었다. 용어도 ‘어문 규정, 국어 규범, 국어 규범의 규정, 성문화한 규범, 언어 규범’ 등 통일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했다. 다음은 국어 규범을 전반적으로 서술한 각 교과서의 내용이다.

<표 19> 국어 규범 전반에 관한 서술 내용

국어 규범 전반에 관한 서술 내용	
교학사	우리 나라는 국민들이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문 규정을 정해 놓았다.
대한교과서	전반적인 설명 없음 <sup>50)</sup>
두산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말과 글에 대한 일정한 약속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이 그것이다.
법문사	국어 규범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언어적 약속을 정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따르도록 한 규범이다. 국어 규범의 종류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블랙박스	전반적인 설명 없음 <sup>51)</sup>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이)	국어의 규범 규정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중앙교육진흥연구소(조)	국어 규범의 종류 :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에 외래어 표기법, 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어 모음 등의 규범이 있다. 이 중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은 실제로는 표준어 규정이란 하나의 규범으로 묶여 있다.
지학사(박)	성문화한 규범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의 4대 규정이 있다.
지학사(심)	우리 국어에서는 한글 표기와 띄어쓰기를 포함하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와 표준 발음법을 포함하는 ‘표준어 규정’,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외래어 표기법’, 우리말을 로마자로 적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의 규범을 따로 정해 놓고 있다.
천재교육	국어에 관한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다.
케이스	우리나라의 언어 규범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이 있으며, 이를 ‘국어의 4대 규범’이라고 한다.

50) 단원의 길잡이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국어 규범의 필요성과 기능을 이해하고, 맞춤법을 비롯하여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같은 표기법 관련 사항, 표준어와 표준 발음, 그리고 문장 성분의 호응이나 높임법 등과 같은 문법 차원의 규범을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제시하고 있다.

셋째, 4대 규범에 대한 세부 항목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4대 규범에 대한 용어가 통일된 규정이나 기준 없이 집필자의 생각대로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념 설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규범에 대한 원리를 강조하기보다 단편적인 설명이 많았다. 한편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교과서도 있었다. 앞으로 국어 규범에 관한 기본 용어와 개념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준과 원칙에 맞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20-1> 4대 규범 대표적 서술 내용<sup>51)</sup>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교과사	우리말을 글로 적을 때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정해 놓은 맞춤법 규정은 안에는 띄어쓰기에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같은 대상을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말하거나 발음할 때 어떤 표준으로 정할 것인지 크를 정해 놓은 규정. 원칙, ‘표준어 사정 원 칩’ 과 ‘표준 발음법’ 으로 구성되어 있다.	‘television’을 ‘텔레비전’으로 적는 것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적을 것인가를 해 놓은 규정.	‘사랑’을 ‘sarang’으로 적는 것과 같이, 우리말을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정해 놓은 규정.
대한 교과서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글의 표기에 관한 규정이다.	표준어는 한 나라의 공동어로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언어이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말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가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외래어 표기는 국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자모만을 사용하며, 외래어의 한 음운은 하나의 기호로 적고 된소리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받침에는 일곱 개의 자음만 쓴다.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원칙으로 한다. <sup>52)</sup>
두산 <sup>53)</sup>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어 규정에서는 ‘우리의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래어란 외국어가 들어와 우리말이 된 말이다. 현재 우리말의 반 이상이 외래어이며, 외래어 가운데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어이다. 최근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로마자(영어의 알파벳)로 옮겨 적는 일정한 규칙을 말한다.

51) ‘자기 평가’ 활동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의 ‘평가 도움말’에는 “국어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에 외래어 표기법 등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구절이 있다.

<표 20-2> 4대 규범 대표적 서술 내용<sup>2)</sup>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법문사	한글 맞춤법은 어떤 생각을 나타낼 때 혼란을 막아 소통을 하도록 만든 규범이다.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국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구실을 한다. 나라방언을 사용하는 분리를 주고, 같은 국문으로서의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어떻게 표기할 것이 '외래어 표기법'이다.	국어의 발음을 외국인에게 알릴 때에도, 그것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블랙스	맞춤법이란 국어로 쓰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원활하게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규범.	한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어를 지정하게 마련이며,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언어로 지정한 말이 표준어이다.	제시한 내용 없음	제시한 내용 없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이)	맞춤법이라는 통일된 표기 방식이 없다면 우리의 문자 생활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은 불필요한 효율적인 문자 생활을 위해 안 될 것이다.	표준어는 한 나라 말 중에서 표준이 되는 말이며, 정치·교육상의 용어이다.	제시한 내용 없음	제시한 내용 없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조)	한글 맞춤법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을 뿐 아니라 한 단어의 어간을 고정시켜 적는 방식을 원칙으로 택하고 있다. <sup>54)</sup>	표준어란 보통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가리킨다. 표준어의 정의는 '현대 서울말'이라는 부분을 '15세기 제주도 말'이라고 바꾸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위와 같은 표준어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외래어는 그 특성상 어형이 불안정하여 다양한 표기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한 단어가 다양한 표기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의 언생활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이와 같은 혼란을 없애기 위해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였다.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은 주로 외국인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많아질수록 국어의 로마자 표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52)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정의는 없고 간단한 설명만 하고 있다.

53)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에 대한 내용은 '단원의 길잡이'에서 가져왔고,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고 '보충 심화'에서만 다루고 있다. 다만 66쪽의 '도움말'에는 "우리말의 표준어 규정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에서 처음 만들었다. 그리고 1988년 당시 문교부에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개정했고,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을 만들었다. 그 중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에 다시 개정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표 20-3> 4대 규범 대표적 서술 내용<sup>3)</sup>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지학사 (박)	철자법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문자 생활의 기준이다.	표준어의 사정 기준과 표준 발음법을 제시한 것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의 표기법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법을 규정한 것
지학사 (심)	한글을 어법에 맞게 적는 기준이 되었다. 현재의 맞춤법은 1933년 제정한 ‘한글 맞춤법’을 개정하여 1988년 1월에 확정 고시한 것이다.	표준어 사정의 원칙과 표준 발음법을 1936년 제정한 ‘조선어 표준 발음법’을 크게 보완하고 1988년 1월에 고시한 것이다.	외래어를 우리나라의 자모인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1958년 제정된 ‘로마자의 한글 표기법’을 개정하여 1986년 1월에 고시한 것이다.	우리말의 지명, 인명 등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법이다. 1984년에 처음 고시되었고 2000년 7월 7일에 개정되었다.
천재교육	‘꽃이’와 ‘꼬치’ 가운데 우리는 왜 ‘꽃이’를 올바른 표기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한글 맞춤법(1988)에서 잘 보아 주라.	표준어는 한 나라의 언어로서 그 나라의 언어로 대표되어야 한다.	외래어 표기법(1986)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말로 적는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7.7.7)은 외래어 표기법과는 반대적으로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제시한 규정이다.
케이스	한글 맞춤법은 같은 말을 사람마다 다르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의 통일된 쓰기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표준어 규정은 방언 등을 정리하여 표준어라는 말들을 정해 놓은 것이다. 표준어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쓰야 하는 공용어이므로 공공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표준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한글로 옮겨 적을 때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	우리말을 로마자로 옮겨 적을 때의 기준을 세워 놓은 것.

54) 한글 맞춤법에 대한 특별한 정의는 없고 다음과 같은 설명이 이어진다. “예를 들어 ‘읽는다, 읽지, 읽고, 읽어서’를 발음 나는 대로 ‘잉는다, 익찌, 일꼬, 일거서’라고 쓴다고 해 보자. 문맥을 한참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어떤 사람이 ‘읽는다, 읽지, 읽고’를 [일른다, 일찌, 익꼬]로 잘못 발음하고 자신의 발음대로 쓰겠다고 한다면 의미 파악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서는 단어의 표기를 하나로 고정시켜 주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11종 국어생활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표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이제부터 방언, 복수 표준어, 남북 언어 관계가 각 교과서마다 어떤 내용을 갖고 전개되고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방언은 표준어 규정을 설명할 경우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비교해 보았다. 복수 표준어는 표준어 규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생활 교과서에서 복수 표준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남북 언어 관계는 통일 시대를 맞이하여 계속 연구해야 할 분야이므로 살펴보았다.

방언은 표준어를 다루면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방언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표준어와의 균형을 갖고 전개하고 있었으며, 각 교과서는 대부분 살려야 할 우리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복수 표준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용어 정도만 제시하였고, 복수 표준어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었다.

남북 언어 관계는 각 교과서의 단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어의 규범으로 한정된 것이므로 방언의 차원으로 설명하거나 표준어의 ‘통일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표 21-1> ‘방언, 복수 표준어, 남북 언어 관계’ 대표적 서술 내용<sup>①</sup>

	방언	복수 표준어	남북 언어 관계
교학사	방언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규범의 기능’ 단원 속에 일부 문장으로 제시함. <sup>55)</sup>	복수 표준어 단어만 제시함.	제시한 내용 없음
대한 교과서	특별한 정의가 없고 표준어의 기능 설명에서 잠깐 언급함.	제시한 내용 없음	구체적 내용 없고 표준어의 기능 설명에서 ‘북한말’이란 용어 사용
두산	방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고 지역 간의 언어 차이를 단어로 간단히 제시함.	제시한 내용 없음	목표 학습에서 비중 있게 다룸. ‘끌어주기’ 내용 ‘발음은 같지만 뜻이 서로 달라 쓰이는 어휘는 의사소통에 가장 큰 지장을 준다. 또한 남한과 북한에는 각각 표준어로 삼는 말이 이미 있다.’
법문사	지방마다 국어 교과서를 그 지역의 방언으로 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특정 지역의 방언을 표준어로 인식할 것이고, 그로 인해 지역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가뭇과 가물, 녕쿨과 덩굴, 옥수수과 강냉이처럼 둘 다 널리 쓰여 복수 표준어로 인정할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기’에서 고영근의 ‘북한의 언어 문화’ 내용을 읽고 활동을 하도록 한다. <sup>56)</sup>
블랙박스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 한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사투리	제시한 내용 없음	‘깊이 생각하기’에서 통일시대와 ‘표준어’, ‘문화어’에 대한 문제 제시 <sup>57)</sup>
중앙 교육진흥연구소 (이)	모든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므로 지역과 계층, 성별, 세대에 따라 언어차가 급씩 나타나는데 이것을 방언이라고 한다. 표준어를 바르고 좋은 순정 언어의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 방언은 상대적으로 나쁜 가치를 지닌, 배격해야 할 언어인 양 오해를 주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표준어와 방언은 국어 발전의 상보적 관계를 갖는다.	복수 표준어를 인정했다는 것은 현재의 언중들이 둘 이상의 단어를 두루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우리의 표준어에 해당하는 것이 북한의 문화어이다. 북한의 문화어는 자모의 순서, 표기법, 띄어쓰기 등에서 표준어와 차이가 있는데, 특히 어휘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55) “왜 사람들은 자기의 지역 방언과는 별도로 표준어를 배우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하는가? 그것은 자기 지역 방언만을 사용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감수광’은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고, ‘정구지’는 역시 이 말을 사용하지 않

<표 21-2> ‘방언, 복수 표준어, 남북 언어 관계’ 대표적 서술 내용②

	방언	복수 표준어	남북 언어 관계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조)	표준어와 대립되는 것으로 방언이 있다. 방언에는 지역 언어와 계층 방언이 있다. 흔히 사투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방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우도 있는데, 이것을 수 표준어라고 한다.	심화 활동에서 남북한의 단어를 비교하여 언어 이질화에 관해 다루고 있는 신문 기사를 소개하고 ‘단일한 언어가 민족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보자.’는 활동 제시
지학사 (박)	방언에 대한 특별한 정의나 설명은 없고 제주도 방언으로 주고받는 대화를 3컷의 만화로 제시함.	복수 표준어 설명 ‘사례 탐색’란에 예만 제시함.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규범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말을 들었을 때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남북한의 언어 문제는 언어 규범을 통일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지학사 (심)	‘먼저 읽기’ 자료와 ‘심화 문제58)’에서 간단하게 언급.	제시한 내용 없음	‘심화 문제’59)에서 간단하게 언급.
천재교육	방언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다지고 넓히기’ 문제60)에서 용어만 언급함.	경쟁 관계에 있는 형태들(복수표준어) : 옛날에 쓰이던 말이나 오늘날에 쓰이는 말, 서울말과 방언 중에 널리 통용되는 것을 허용하여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어생활과 국어 정신’이라는 다른 단원의 ‘(3)국어의 세계화’에서 다루고 있음.
케이스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방언이다. 지리적 방언은 말 그대로 한 언어의 지리적 변이체들이다. 그런데 이런 지리적 방언은 좁은 의미의 방언이고, 넓게 이해하면 거기에는 사회 방언까지 포함된다.	구체적 설명 없이 ‘스스로 하기61)’ 문제에서 제시.	제시한 내용 없음

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

- 56) ‘더 나아가기’ 활동의 문제는 ‘① 발음, 문법적인 면에서 남북한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조사해 보자. ② 남북한이 통일을 위해서 단일한 국어 규범을 지켜야 할 당위성에 대해 400자 내외로 써 보자.’이다.
- 57) ①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 공식어로 표준이 되는 말을 선정한다고 할 때, 다음에 제시된 표준어와 문화어 중 어떤 단어를 표준이 되는 말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② 남북한이 통일을 맞아 표준어와 문화어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공식어를 선정하고자 할 때, 어떤 원칙을 세워 표준어를 선정해야 할지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보자.
- 58) ‘심화 문제’ 중 ‘1-(2)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에 대해 말해 보자.’
- 59) ‘심화 문제’ 중 ‘2. ~남한과 북한의 자모 배열 순서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자.’

마지막으로 각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에 부록으로 국어 규범 관련 전문이 실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10학년 ‘국어’ 교과서의 상·하권에는 각각 4대 규범 전문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국어생활 교과서에서 국어 규범의 전문을 일부만 부록에 게재하거나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국어’ 교과서와의 중복 게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표 22> 교과서 부록 ‘4대 규범 전문’ 제시 여부

	국어 규범 전문의 부록 <sup>62)</sup> 내용
교학사	로마자 표기법 전문
대한교과서	한글맞춤법 일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전문
두산	없음
법문사	없음
블랙박스	없음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전문
중앙교육진흥연구소(조)	표준 발음법전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전문
지학사(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전문
지학사(심)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전문
천재교육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전문
케이스	개정 로마자 표기법 일부

60) ‘다지고 넓히기’에서 ‘(2)표준어로 바꾸었을 때, 방언형 표기와는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자.’, ‘(3)표준어보다 방언이 더 어울리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자.’라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61) ‘스스로 하기’ 4번 문제는 ‘현재 표준어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복수 표준어 중에서 알아 둘 만한 흥미로운 사례들이다. 이들을 복수 표준어로 정한 이유를 표준어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자.’이다.

62) 국어 규범 용어는 각 ‘국어생활’ 교과서 표현 그대로 기재함. ‘국어(상)’ 부록에 ‘한글 맞춤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전문(全文)이 실려 있고, ‘국어(하)’ 부록에는 ‘표준어 규정(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 발음법)’ 전문이 실려 있다.

### Ⅲ. 문법 교과서와 국어 규범 교육

#### 1. 문법 과목의 성격과 내용

지금까지 국어생활 교과서의 국어 규범 단원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교육 과정의 ‘문법’ 부분을 통해 문법 과목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제7차 교육 과정의 ‘문법’ 과목의 성격은 제6차 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행된 국어 지식 교육에 대한 그 동안의 반성과 개혁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제6차 교육 과정의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63)</sup>

문법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과목인 국어 교과의 ‘국어 지식’ 영역의 학습 내용을 심화·발전시킨 과목이면서, 동시에 일반 선택 과목인 ‘국어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과목의 명칭이 문법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문법(grammar)’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다. 문법 과목은 국어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국어 지식을 전반적으로 탐구하고, 국어에 관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며, 국어 사용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언어 규범에 대하여 학습하는 내용들로 구성된다.<sup>64)</sup>

고등학교 문법 과목의 내용 체계는 ‘언어와 국어, 국어 알기, 국어 가꾸기’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어 가꾸기’에서는 표준어와 맞

63) 교육부, 앞의 책, p.265.

6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앞의 책, p.6.

춤법 등의 국어 규범 문제와 국어의 올바른 사용, 그리고 국어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르는 활동이 제시된다. 이때 그 내용이 광범위하므로 명제적 지식에 관한 개념 설명과 단순 암기 위주로 흐르지 말 것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주안점은 바람직한 언어생활과 논리적인 사고력의 함양,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다음은 문법 과목의 목표에 관한 것이다. 문법 과목의 목표는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목표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두 번째 목표는 ‘1) 국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2)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한다.’이다. 그러면서 현재 언어생활은 구어면, 문어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보고 있다. 즉 표준 발음에 맞지 않은 발음이나 비문법적인 문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의 수준이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다음은 문법 과목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국어 가꾸기’의 내용 중에서 특히 ‘(가) 국어 사용의 규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국어 사용의 규범’ 항목은 표준 발음, 표준어와 방언, 맞춤법 등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 ① 표준 발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 ② 표준어와 방언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상황에 따라 바르게 사용한다.
- ③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서 이를 지킨다.

먼저 표준 발음 부분에서는 현재 학습자들이 발음면에서 많은 혼란을 보이고 있어 표준 발음법을 익혀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정했다는 배경을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학습 내용은 표준 발음의 필요성,

표준어와 표준 발음의 관계, 표준 발음의 구체적인 내용, 표준 발음으로 발음하기 등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표준 발음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충분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 방법도 제시했는데, ‘자신의 말소리를 녹음해 보는 활동’과 ‘표준 발음을 담은 테이프 또는 비디오 자료를 활용하는 활동’이 그것이다.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내용은 표준어와 방언을 학습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표준어 제정 이유, 방언의 가치 알기,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현실 알기, 표준어와 방언의 독립적이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정립하기’ 등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학습자의 활동 사항까지 교육 과정 해설서에서 보여 주고 있다.

‘나는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준어와 방언은 언어적으로 어떻게 다른 언어인가?’, ‘내가 쓰는 방언은 표준어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표준어를 쓰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 적이 있으며, 그 때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고, 방언을 사용해야 하는가?’, ‘나는 표준어와 방언을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sup>65)</sup>

한편 표준어와 방언에 부가된 기존의 왜곡된 시각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어와 언어 사용자의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보았다.

---

65) 교육부, 앞의 책, p.289.

다음은 맞춤법과 관련된 교육 과정 해설서의 내용이다. 학습자들은 맞춤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맞춤법에 맞지 않게 써도 좋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규정은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학습의 첫 단계와 마무리 단계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밝히고 있다.

학습의 첫 단계에서 평소에 영어 단어 철자법을 지켜서 쓰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차이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규정에 대해 학습할 때에는 원리와 규정을 단편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의 운용 원리와 연결 지어 학습하는 것이 심화 단계에 더 적합하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규정은, 한글이 표음 문자이면서도 문자의 시각적 전달력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고 모아쓰기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학습이 마무리되면 안 된다. 학습자의 글이나 동료의 글, 공공 매체에 실린 글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맞춤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보고, 실제로 맞춤법에 준하여 글을 써 보는 활동을 꼭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맞춤법을 지키면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한글 맞춤법 규정은 예외 없이 간단한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규범으로 외워서 지키는 수밖에 없다.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는 과정을 제공하는 활동도 필요하다.<sup>66)</sup>

앞서 문법 과목의 내용이 광범위하므로 단순 암기 위주의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으면서도 예외 사항은 외워야 한다는 내용은

---

66) 교육부, 앞의 책, p.290.

문제가 있다. 교육 과정 해설서에서는 가능하면 암기란 단어나 외워서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은 피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가) 국어 사용의 규범’과 관련해서는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두 표기법에 대한 개념이나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 2.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 규범 단원

지금까지 교육 과정의 내용을 통해 문법 과목의 성격과 내용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문법 교과서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7차 교육 과정 문법 과목의 ‘8. 국어의 규범’ 단원은 ‘표준어와 표준 발음’,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세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교사용 지도서의 단원 설정의 취지와 지도상의 유의점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단원 설정의 취지에서는 어문 규범이 국어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의 규범’ 단원은 초·중·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인 ‘국어’와 선택 과정인 ‘국어생활’을 통해 배운 국어과의 규범 학습 내용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총정리하는 성격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음 표는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의 규범’ 단원 구성 내용이다.

<표 23> 제7차 문법 교과서 ‘국어의 규범’ 단위 구성 내용

대단원 제목과 내용	중단원 · 소단원 순서와 내용	단원의 마무리
8. 국어의 규범 (단원의 길잡이, 학습 목표, 단원을 배우기 전에)	01. 표준어와 표준 발음 1. 표준어와 방언-탐구 2. 표준 발음-탐구 <가꾸기> 02. 한글 맞춤법-탐구 <가꾸기> 03.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 외래어 표기법-탐구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탐구 <가꾸기>	1.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진술 중 맞는 것에 √표시를 하여 보자.  2. 다음은 ‘한글 맞춤법’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한 도표이다. 본문을 참조하여 빈 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넣어 보자.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좁은 의미의 국어의 4대 표기법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 학습을 지도할 때는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도록 하며, 단편적인 항목의 표기법 지식을 암기하거나 강요하는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규범 자료집을 학생들이 항상 지참하고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 학습자들이 느낀 것을 그대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제 위에서 제시한 단위 설정의 취지와 지도상의 유의점에 맞게 문법 교과서의 내용이 잘 구성되었는지 중단원별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표준어와 표준 발음’ 단원은 다시 ‘표준어와 방언’, ‘표준 발음’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글세-삭월세’, ‘설레다-설레이다’, ‘안절부절못하다-안절부절하다’ 등 일상 생활에서 틀리기 쉽거나 혼동하기 쉬운 예를 제시하면서 표준어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가뭇-가뭇’, ‘고까-꼬까-때때’, ‘살캉

이-삶' 등의 복수 표준어도 제시하였다.

<표 24> 대단원과 중단원 학습 목표

대단원	대단원 학습 목표	중단원	중단원 학습 목표
8. 국어의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범에 맞는 국어생활의 필요성을 이해한다.</li> <li>· 표준어를 사용하고 표준 발음을 할 수 있다.</li> <li>·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알고 단어와 문장을 바르게 표기할 수 있다.</li> <li>·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알고 바르게 표기할 수 있다.</li> </ul>	01. 표준어와 표준 발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 생활에서 표준어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한다.</li> <li>· 표준어와 방언과의 관계를 안다.</li> <li>· 표준 발음을 알고, 이를 지키는 국어생활을 한다.</li> </ul>
		02. 한글 맞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 맞춤법의 역사와 원리를 이해한다.</li> <li>· 한글 맞춤법을 지켜 바른 국어생활을 한다.</li> </ul>
		03.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원리를 알고 이를 익힌다.</li> <li>· 세계화 시대에 외래어와 로마자의 사용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기른다.</li> </ul>

서울말이 표준어가 된 것은 서울이 정치, 행정, 문화 등의 중심지라는 데 힘입은 것이지, 다른 방언보다 우수하기 때문은 아니라고도 말한다. 이것은 '표준어는 우월하고 방언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한다. 방언의 가치는 같은 고향 사람끼리 일체감과 소속감이 형성되며, 문학 작품에서 문학적 가치를 줄 수 있으며, 표준어에서 사라진 말이 남아 있어 국어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제시하였다. 이런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표준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된다. 탐구 학습은 이러한 방언의 효용성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구성하였다. 김영랑의 '오-매 단풍 들것네'와 박목월의 '이별가'는 방언의 가치를 모둠별로 탐구할 수

있게 해 준다. 학생들은 ‘과수원길’의 노랫말을 제주도 말로 적어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표준 발음 부분은 ‘의사’의 정확한 발음, ‘승호’와 ‘성호’의 발음 구별, 곽받침의 올바른 발음, ‘내’와 ‘네’의 구별 등의 몇 가지 사례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소단원은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학습 내용에 비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것은 표준어와 방언을 비교한 부분을 제외하면, 예만 들고 간단하게 설명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우선 표준어 규정과 표준 발음법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때 두 규정의 중요한 항목 소개는 학생들에게 표준어 규정과 표준 발음법 학습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원리를 알 수 있게 개념을 충분히 설명한 것도 아니고, 풍부한 예를 통해 실생활의 접근을 시도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제시한 단원 설정의 취지의 내용은 ‘반복’과 ‘총정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법 교과서의 내용은 규범 학습에 대한 반복과 총정리가 아니라, 단순한 소개와 예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탐구 학습의 내용과 가꾸기의 문항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탐구>

- ③ 다음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혼동하는 예이다. 바른 것에 √표시를 하고 ‘표준어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자.
- ① 표준 발음법에 맞추어 다음 문장들을 읽어 보자.
- ② 다음 자료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의 길이에 주의하면서 읽어 보자.
- ③ 다음을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여 보자.

- ④ 한글 자모의 이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연결될 때의 표준 발음을 알아 보자.

<가꾸기>

2. 다음 문제에서 바른 말에 √표시를 하고, 자신이 올바른 국어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보자.
3. 다음 문제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진술에 √표시를 하고, 자신이 표준 발음법에 맞는 국어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보자.

위 문항들은 오히려 국어생활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이다. 문법 교과서가 국어생활 교과서의 심화된 성격을 띠기 위해서는 예만 들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먼저 표준어 규정과 표준 발음법의 주요 조항들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원리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제시도 있어야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밝혔듯이 그것은 또한 ‘단편적인 항목의 표기법 지식을 암기하거나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국어생활’ 교과서가 글자 그대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키고 노력할 국어 규범에 대한 학습의 장이라면, ‘문법’ 교과서는 학생들이 국어생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경험을 토대로 규범의 세부 조항이나 역사적 배경 등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정리하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에서는 표준어 규정과 표준 발음에 비해서 비교적 다양한 것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 물론 ‘어법대로 적기’와 ‘소리대로 적기’를 설명하고 학습하기 위해 역사적

배경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한글 맞춤법에 대한 학습 내용은 역사적 배경, 한글 맞춤법 규정 소개를 통한 원리 학습, 틀리기 쉬운 예들을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한다.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에서 세종은 ‘빛곳, 옆의갓’처럼 원형을 밝혀 적는 원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소리대로 적기’ 방식이 쓰기 편하여 널리 통용되었다는 사실도 제시하였다. 현대는 독서의 능률을 강조하므로 ‘어법대로 적기’가 채택되었으며 그 역사적 상황은 ‘주시경’ 선생으로부터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설명도 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글 맞춤법에 대한 내용은 역사적 배경 이외에 특별한 설명 없이 탐구 학습과 가꾸기 문항만을 제시한 문제점이 있다. 다만 교사용 지도서의 ‘사이시옷’에 관한 설명은 의미가 있다고 보아 그 내용을 제시해 본다.

발음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간편성, 효율성 때문에 표기법이 바뀌기도 한다. 일례로 ‘理科’의 경우, 이것을 ‘잇과’로 쓰나 ‘이과’로 쓰나 한국인의 발음에는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사잇소리를 표기하려는 표음주의적 관점에서는 사이시옷 표기를 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에 사이시옷을 표기하고 나면 국어에는 너무 많은 사잇소리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과, 치과, 이과, 문체점, 서무과, 요리법’ 등에도 모두 사이시옷을 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된다. 어느 범위까지 사잇소리 표기를 할 것인가는 늘 논란의 대상이었다. ‘진돗개’를 현 규정과는 달리 진도군에서 ‘진도개’로 적기로 결정하였다는 사례에서 보듯이, 언중이 주어진 규정에 부분적으로 불만을 표명하기도 한다. 특히 ‘수돗물, 장밋빛,

우윳빔, 김치국'과 같은 3음절어에서는 '수도물, 장미빔, 김치국, 우윳빔'으로 적어도 단어 인지(認知)에 불편이 없기에, 사이시옷 표기는 시각적으로 불필요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이시옷 표기는 도로명 표기에도 나타나 언중을 곤혹스럽게 만드는데, 2001년 8월 4일 개최된 문화 관광부 국어 심의회에서는 도로명의 사이시옷 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확정하였다.

도로명(○○길)의 사이시옷 표기 원칙	
'새 주소 부여 사업'의 하나로 새로 명명하고 있는 도로명 고유 명사 '○○길'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기존의 표기]	[결정 사항에 따른 표기]
개나리길/개나릿길	개나리길
경찰서길/경찰섯길	경찰서길
○○여고길/○○여곳길	○○여고길

이러한 내용은 교사용 지도서에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문법 교과서에도 나타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규범에 대해 단순히 암기하거나 틀린 것을 고르는 수준을 벗어나려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과감하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규범에 대해 폭넓게 학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다룬 단원에 대한 것이다. 이 단원은 국어생활 과목과 연계해 볼 수 있고, 심화 선택의 의미를 충실히 담고 있었다. 앞 장에서 살펴 본 국어생활 교과서의 내용들에 비해 우선, 두 가지 표기법을 한데 묶어 관련성을 높였다. 학생들이 두 가지 규범에 대해 타당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구성한 것이다. 아래 제시문은 교과서에 나타난 두 가지 표기법의 의미 있는 내용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학습 내용을 통해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필요성

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게 된다.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은 원어에 가까운 것이 이상적이지만 국어와 다른 음운 체계를 가진 외국어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가령 [f, v]는 근사음(近似音) ‘프, 브’으로 적고 만족할 수밖에 없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를 원음과 똑같이 표기하려는 외국어 표기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들어와 정착된 발음으로 적어 통용하는 표기법이므로 원어에 일치시킬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이 외국어를 원음대로 충실히 반영하기 어렵듯 로마자 표기법도 우리말을 문자와 음운 체계가 다른 로마자로 적어 외국인에게 전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중략) 로마자 표기법은 영어권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언어권 사람이 똑같이 읽어 줄 것을 기대하는 표기도 아니므로 발음의 불일치는 불가피한 것이다.

문법 교과서의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은 좋은 사례다. 두 표기법에 대한 설명은 단순한 해설이나 단어 변환의 수준을 벗어나 학생들이 충분한 생각을 갖고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학생들은 이 내용을 통해 두 표기법의 제정 목적과 두 표기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조항은 제5항까지 순차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각각의 조항이 정해진 이유와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제3항에 대한 설명이다.

현대 국어의 음절 끝소리에는 일곱 가지 소리만 실현되므로 일곱 개의 홀받침만 허용하고 나머지 홀받침은 물론 그 어떤 겹받침도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커피숍, 슈퍼마켓, 케익’은 ‘커피숍, 슈퍼마켓, 케이크’가 바르다. 특히 [t] 음을

지닌 ‘hotline, chocolate’등의 ‘t’는 ‘ㄷ’대신 ‘핫라인, 초콜릿’처럼 ‘ㅌ’으로 적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것은 ‘지학사’ 국어생활 교과서 검토에서 ‘이희승·안병희’의 책을 인용하여 설명한 바 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조)’의 국어생활 교과서의 설명도 쉽게 이 부분을 제시했었다. ‘coffeeshop, supermarket, cake’는 ‘[커피숍+이], [디스켓+을]’처럼 뒤에 조사를 붙여 보면 ‘[커피쇼비], [디스케슬]’처럼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커피숍, 슈퍼마켓, 케익’은 ‘커피쇼, 슈퍼마켓, 케이크’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인명·지명 표기의 차이점은 탐구 학습에서 문제로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교사용 지도서는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을 제공한다. 교사용 지도서는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이 원음에 가깝게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어나 중국어에서 온 말에 대해서도 원음을 무시하고 우리식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인명과 지명은 고전(古典)을 통하여 우리 생활에 융화되어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전통이 서 있기 때문에 ‘신해 혁명’을 기준으로 이전 것은 우리식 한자음으로 이후 것은 현재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문화 교류상 그런 예가 적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 모두 현재의 일본어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다는 것이다. 예로 제시한 것이 ‘충승(沖繩), 찰황(札幌)’이다. 이것은 우리 한자음으로 읽으면 ‘충승, 찰황’인데, ‘오키나와, 삿포로’를 버리고 ‘충승, 찰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풍신수길, 이등박문’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이토 히로부미’로 적는 것도 같은 이유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반영되었고, 교과서의 문제를 통해 학생들은 외래어 표기법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독립문’의 예를 통해 학생들은 국어 단어를 음운대로 전사하는 ‘전자법(轉字法)’과 단어의 발음대로 전음하는 ‘전음법(轉音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국어 자음에는 ‘ㄱ-ㅋ-ㆁ’처럼 대립 현상이 있어 로마자로 표기할 때 여러 안(案)이 있다는 내용도 제시하였다.

교사용 지도서의 ‘지원 자료’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약사’, ‘로마자 표기의 쟁점 사항’, ‘현행 표기의 기본 원칙’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탐구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이름, 집 주소, 가족 이름, 학교 이름, 학교 주소’ 등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단군, 세종, 민영환’ 등의 역사적 인물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김대수-김태수, 이정민-이중민’, ‘신촌-신천, 정주-청주-충주’ 등의 표기에서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가꾸기’에서는 학생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성씨(姓氏)의 로마자 표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문항을 통해 ‘로마자 표기’와 ‘의역 표기’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다.

4. 다음은 우리의 문화 유산들이다. 이들을 로마자 표기와 의역 표기로 적어 보고 장단점을 모둠별로 발표하여 보자.

[예] 독립문 - (소리) Dongnimmun	(뜻) The Gate of Independence
---------------------------	------------------------------

- 한글 :
- 불국사와 석굴암 :
- 거북선 :
- 해인사와 팔만 대장경 :
- 조선 왕조 실록 :
- 탈춤 :
- 태권도 :
- 김치과 불고기 :
- 설악산 :
- 창덕궁 비원 :
- 첨성대 :
- 판소리 :

지금까지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 규범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살펴보았다.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단원은 만족할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두 표기법을 배워야 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었고, 단순하게 예를 제시하거나 규범을 암기하는 식의 방식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보였다. 다만 ‘표준어와 표준 발음’ 단원은 간단한 예만 제시되어 있어 표준어와 표준 발음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글 맞춤법’ 단원에서는 역사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한글 맞춤법 본연의 내용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다.

## IV. 국어 규범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 제7차 교육 과정 국어 규범 교육의 문제점

일반 선택인 국어생활 과목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택하여 학습하고 있는데, 국어생활 과목의 내용 체계를 분석해 보면 독립교과로서의 두드러진 특징이나 교육 내용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대체로 심화선택 과목인 문법이나 문학의 영역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sup>67)</sup>

이러한 문제점은 국어 규범 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어생활 교과서에서는 ‘실천’과 ‘실제 언어생활’이 강조되고, 문법 교과서에서는 ‘원리’가 강조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두 교과서가 각각 독립된 성격을 갖고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의 이름에 맞게 구성된 것인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과목 간에 국어 규범에 관한 학습 내용이 얼마나 유기적인지 알 수 없었고, 그 단계도 심화·발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국어생활 교과서에는 국어의 규범을 배워야 하는 필요성과 이유가 잘 나타나 있었다. 한글 맞춤법 규정과 표준어 규정에 대한 내용도 잘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표준 발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해서, 표준 발음법과 관련된 설명이 미흡하였다.

한편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단원 설정이 없는 교과서

---

67) 박덕유, 『학교문법론의 이해』, 역락, 2006, pp.23~25.

가 있거나 보충·심화에서만 간략하게 다루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각 교과서마다 용어와 개념에 대한 설명이 제각각이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 외래어’ 등에 관한 설명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개념 설명도 각 교과서마다 차이가 났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국어생활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학습 활동에 대한 예시 답안을 제시하는 수준이어서, 교사들이 국어 규범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수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문법 교과서는 ‘표준어와 표준 발음’,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문법 과목의 교육 과정 설명에는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법 교과서에서는 두 표기법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를 원음과 똑같이 표기하려는 ‘외국어 표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어에 일치시킬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도 영어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권 사람이 똑같이 읽어 줄 것을 기대하는 표기가 아니므로 발음의 불일치는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국어생활 과목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심화 선택’이란 이름에 맞게 이러한 내용이 구성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표준어와 표준 발음, 한글 맞춤법에 관한 내용은 교육 과정의 내용에는 ‘(3) 국어 사용의 규범’이라 하여 다양하게 나타나 있었지만, 문법 교과

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잘 반영되지 못하였다.

제7차 교육 과정에서 국어 규범과 관련된 단원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인 국어, 일반 선택 과목인 국어생활, 심화 선택 과목인 문법으로 단계화 되어 있어서, 그 구분이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국어생활과 문법 교과서의 검토 결과, 두 과목의 관계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고, 국어 규범 단원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다.

문법 교육의 목표에 의거하여 문법 교과서의 내용 체계상 문제점이 있고, 문법 과목의 독자적 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문법 교육의 독자성 문제에 있어서, 현재 심화 선택 과목인 문법이 일반선택 과목인 국어생활과 내용 체계상 일부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국어지식과 문법이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문법 교과서의 내용 체계가 대폭 확대된 데에서 연유하고 있다.<sup>68)</sup>

이와 같이 국어생활과 문법 과목은 각각 독자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과 체계가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어생활 과목에서 다룬 내용이 문법 과목에서 특별히 심화·발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문법 교과서가 또 하나의 국어생활 교과서처럼 인식되었다. 그리고 국어생활 과목이 어떤 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국어생활 교과서에서 다루면 좋은 것이 문법 교과서에 있거나,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면 괜찮은 내용이 국어생활 교과서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문법 교사용 지도서의 ‘단원 설정 취지’ 내용은 규범 교육의 중요성을 깨

---

68) 최경봉, 「문법교과서의 내용 체계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국문학』 제142호, 2006.

단계 해 주고, 문법 과목의 성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어문 규범은 국어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 사항이다. 규범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국어과 학습은 물론 다른 교과 학습에 장애를 가져오므로 국어과의 규범 교육은 전 교과의 학습 능력을 좌우하는 기초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국어과를 흔히 도구 교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단원에서는 초·중·고 국민 공통 교육 과정(국어), 선택 과정(국어생활)을 통하여 배워 온 국어과의 규범 학습 내용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총정리하는 성격이 크다. ‘표준어와 표준 발음’,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나누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규범을 살펴보고, 바른 국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sup>69)</sup>

국어의 규범 교육은 국어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문법 과목에서는 학생들이 규범 학습을 총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문법 교과서의 국어 규범 단원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언어의 올바른 생활은 참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언어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규범에 의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어의 규범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국어 규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은 잘못 알고 있는 맞춤법과 표준어를 그대로 답습하여 사용하고 있다.<sup>70)</sup>

문법 지식은 무조건 외우는 것이어서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이와

6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앞의 책, p.292.

70) 박덕유, 앞의 책, p.181. ‘국어의 규범’은 원래 ‘정서법’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 전개상 ‘국어의 규범’으로 고쳐서 서술하였다.

같이 문법 지식을 정확하게 익히는 것은 창의적인 사고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국어 규범의 학습은 정확한 문법 지식의 측면과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실용성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어생활과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 규범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국어생활 교과서는 국어와 문법 과목의 가교 역할에 문제가 있었으며, 국어생활과 문법의 국어 규범 단원 내용은 중복된 부분이 있었다.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2007년 개정 교육 과정 국어 규범 교육의 방향

2007년 국어과 개정 교육 과정(이하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국어의 검정 체제 전환, 국어생활의 폐지, 매체 언어의 신설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국어 규범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국어 규범과 관련된 단원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가 주목된다. 국어 과목에서는 국어생활 과목의 성격과 내용이 어느 정도 수용되었는지, 문법 과목에서는 제7차 교육 과정의 문제점이 잘 극복되었는지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먼저 국어생활 과목에 있었던 국어 규범의 내용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국어 과목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국어 과목의 내용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이다. 이 중에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은 ‘문법’ 영역과 관련이 있다.

국어 과목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은 실제 상황에서의 주체적인 국어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능력이 향상되게 한다. 특히 ‘문법’ 학습은 언어 현상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강조하고, 학습한 지식을 국어 사용 실제에 적용하는 활동을 강조한다.<sup>71)</sup>

국어의 ‘문법’ 영역 중에 ‘국어의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의 4대 규범 가운데 학생들의 국어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선정되도록 하였다.

국어 규범과 관련된 내용은 ‘듣기’ 영역과 ‘문법’ 영역에 있다. 10학년 ‘듣기’ 영역의 경우, ‘사회 방언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대화나 이야기’가 ‘담화 수준과 범위’에 나와 있다. 성취 기준으로는 ‘사회 방언을 듣고 언어적 다양성을 이해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 요소의 예’에는 ‘사회 방언의 특성 이해하기’, ‘사회 방언의 다양한 표현 조사하기’, ‘사회 방언에 반영된 집단의 특성 파악하기’, ‘사회 방언의 소통 기능 이해하기’ 등의 내용이 있다.

‘문법’ 영역의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에는 ‘국어의 음운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 자료’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한 언어 자료’가 제시되었다. 성취 기준은 ‘국어의 음운 규칙을 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알고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 요소로는 ‘음운 규칙과 표준 발음, 표기의 관계 이해하기’, ‘국어의

---

71) 교육인적자원부, 『국어과 교육과정』, (주)세원문화사, 2007, p.1.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 알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사용하기’, ‘국어를 정확하게 표기하려는 태도 기르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10학년의 경우, ‘사회 방언’은 ‘듣기’ 영역에 나타나 있으며, ‘표준 발음’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은 ‘문법’ 영역에서 내용 요소의 예로 제시되었다. 2학년 ‘문법’ 영역에는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알기’와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음을 알기’ 등 2개의 내용이 있다. 그리고 4학년 ‘문법’ 영역의 경우에는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 이해하기’, ‘표준어와 방언이 사용되는 상황 이해하기’, ‘상황에 맞게 표준어와 방언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등 3가지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2학년에 있는 표준 발음과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한 언급은 너무 이르다. 또한 2학년과 4학년 과정에 각각 ‘표준 발음과 한글 맞춤법’,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가, 10학년에 가서야 다시 표준 발음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국어의 규범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 위와 같이 결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국어 규범 학습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학년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 내용의 구성은 더욱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문법 과목의 국어 규범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 교육 과정에서 문법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국어 과목의 ‘문법’ 영역에 대한 학습 내용을 심화·발전시킨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언어의 특성과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탐구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이

며,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창의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sup>72)</sup>

개정 교육 과정에서 문법 과목은 ‘국어와 읽’, ‘국어와 삶’, ‘국어와 열’ 등 3개의 내용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어와 삶’ 영역은 ‘국어의 규범’, ‘국어와 생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국어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국어를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어와 삶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국어의 규범은 ‘정확한 발음’, ‘올바른 단어 사용’, ‘좋은 문장 표현’, ‘효과적인 담화 구성’ 등 4개로 되어 있다. ‘정확한 발음’은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와 ‘각 지역 방언의 특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발음한다.’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올바른 단어 사용’은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외래어 차용 현상을 이해하고,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규정을 익혀 외래어를 올바르게 표기한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그 표기 원리와 규정을 익혀 국어를 로마자로 올바르게 표기한다.’로 되어 있다.

다음 내용은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국어와 규범’ 부분이 교과서로 실현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밝힌 것이다.

‘국어와 규범’에서는 정확한 국어 생활을 위한 국어 규범을 최종적으로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본격적으로 사회인이 되기 이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연습하도록

---

72)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105.

한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은 무작정 암기하지 말고, 이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깊이 탐구할 기회를 주어, 규범을 익히려는 의식과 태도까지 함께 고양한다. ‘정확한 발음’에서는 표준어와 방언의 변별적 기능을 이해하면서 표준발음법을 익히도록 내용을 선정한다.<sup>73)</sup>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문법’은 학생들이 배운 문법 지식을 실제 언어생활에 쉽게 전이할 수 있는 능력과 학생의 탐구력과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그동안 문법 교과서는 정확한 국어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지식만을 제공하면 된다는 생각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국어 규범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기존 국어생활 과목의 내용이 국어 과목으로 많이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법 과목도 국어생활에서 강조했던 ‘실제 언어생활’ 부분을 강화하여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이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이 보완되면서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

73) 국어과 교과서 집필 기준안 중에서 문법 교과서 내용 선정 시 유의 사항의 ‘국어와 규범’과 관련된 부분이다.

### 3. 국어 규범 교육을 위한 개선 방안

지금까지 국어생활과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 규범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어 규범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과 ‘방향’은 국어 규범 교육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의 토대가 될 것이다.

국어도 하나의 사회적 약속인 만큼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하며, 국어를 이용하는 규범적 능력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갖추어야 할 능력이 된다. 맞춤법을 익히고, 발음과 표기 사이의 괴리를 머릿속에서 부합시키는 능력 같은 것이 초보적인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 된다.<sup>74)</sup>

제7차 교육 과정의 국어생활 과목의 핵심어는 ‘실천’인데, 국어 사용의 실천성은 막연한 관념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며, 국어의 실천 마당인 우리 문화 속에서 국어 규범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국어 규범에 대한 학습이 지식의 학습이 아니라 실천성의 강화에 놓여야 한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이렇듯 국어 규범 교육은 이른 시기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실천성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성을 강조한 국어생활 과목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사라지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 규범과 관련된 부분이 국어와 문법 과목으로 나뉘게 된다고 하였다.

다음은 제7차 교육 과정의 문법 과목의 성격과 개정 교육 과정의 문법 과목

---

7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상) 교사용 지도서』, (주)교학사, 2002, p.6.

의 성격을 비교한 것이다. 이것은 문법 교육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게 한다.

<표 25> 문법 과목의 성격 변화

제7차 교육 과정 문법 과목의 성격	2007년 개정 교육 과정 문법 과목의 성격
국어 과목의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을 심화·발전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문법 과목은 종래 생각해 오던 일반적인 문법(grammar)으로 한정되는 내용이라기보다 전반적인 언어생활을 영위하는 데 유의한 국어 지식의 탐구, 국어에 대한 태도 기르기, 언어 규범에 대한 학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문법’은 국민 공통 기본 ‘국어’ 과목의 ‘문법’ 영역에 대한 학습 내용을 심화·발전시킨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언어의 특성과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탐구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나아가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개정 교육 과정에서 문법 과목의 성격은 기존의 성격과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다만, ‘국어 지식’ 영역이 ‘문법’ 영역으로 표현이 바뀌었고, ‘언어 규범에 대한 학습’은 빠져 있다.

한편 ‘국어과 교과서 집필기준안’의 ‘문법 교과서 개발 방향’에서는 그동안 문법 교과서는 정확한 국어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지식만을 제공하면 된다고 여겨왔다고, 그동안의 문법 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문법 교과서도, 학생이 배운 문법 지식을 실제 언어생활에 쉽게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뿐만 아니라, 학생의 탐구력과 창의성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문법 교과서는 정확한 국어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지식만을 제공하면 된다고 여겨왔다’라는 표현은 문법의 기초 지식에 대한 학습을 낮게 보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문법 과목의 성격에서 ‘실제 언어생

활에 쉽게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의 지나친 강조는 그동안 해 왔던 '문법의 기초 지식에 대한 학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더욱이 문법의 기초 지식이 실제 언어생활과 분리된 채 학습해야 할 것으로도 인식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맞춤법 같은 규범적 능력은 어려서부터 익혀야하고, 실제 언어생활에도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법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과 실제 언어생활의 전이가 분리될 것이 아니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7차 교육 과정과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국어 규범에 관한 교육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에 제시한 표는 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 26> 제7차 문법 과목과 개정 문법 과목 체계

제7차 교육 과정 문법 과목		개정 교육 과정 문법 과목	
영역	내용	영역	내용
(1) 언어와 국어	(가) 언어의 본질 (나) 언어와 인간 (다) 국어와 국어 문화	(1) 국어와 삶	(가) 언어의 본질 (나) 국어의 구조
(2) 국어 알기	(가) 음운의 체계와 변동 (나) 단어의 갈래와 형성 (다) 국어의 어휘 (라) 문장의 구성 요소와 짜임새 (마) 단어의 의미 (바) 문장과 담화	(2) 국어와 삶	(가) 국어와 규범 (나) 국어와 생활
(3) 국어 가꾸기	(가) 국어 사용의 규범 (나) 정확한 국어생활 (다) 국어 사랑의 태도	(3) 국어와 얼	(가) 국어의 변천 (나) 국어의 미래

제7차 교육 과정의 '국어(국민 공통 기본), 국어생활(일반 선택 과목), 문법(심화 선택 과목)'의 형태는 '국어(국민 공통 기본), 문법(선택 과목)'의 구조가

된다. 이 가운데 ‘국어와 규범’ 단원은 제7차 교육 과정의 ‘국어 가꾸기’ 영역에서 개정 교육 과정의 ‘국어와 삶’ 영역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국어와 규범’이 ‘국어와 삶’ 영역으로 옮겨진 이유가 ‘실제 언어생활에 쉽게 전이될 수 있는 능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언어생활’은 제7차 교육 과정의 ‘국어 가꾸기’ 영역에서도 이미 강조된 바 있다.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의 국어 규범과 관련된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표준 발음법은 표준 발음의 원리와 규정의 이해를 강화시켰고, 방언은 정확한 발음 부분에 넣어 방언의 발음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통합하여 지도하게 구성하였다.

<표 27> 제7차 문법 과목과 개정 문법 과목의 ‘국어 규범’ 부분

제7차 문법 ‘국어 사용의 규범’	개정 문법 ‘국어와 규범’
<p>(3) 국어 가꾸기 (가) 국어 사용의 규범 이 항목은 언어생활의 통일성을 위해 마련된 표준 발음법,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언어생활에서 규범에 맞게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p> <p>① 표준 발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② 표준어와 방언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상황에 따라 바르게 사용한다. ③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에서 이를 지킨다.</p>	<p>(2) 국어와 삶 (가) 국어와 규범</p> <p>① 정확한 발음 ㉠ 표준 발음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 각 지역 방언의 특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발음한다.</p> <p>② 올바른 단어 사용 ㉢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 외래어 차용 현상을 이해하고,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규정을 익혀 외래어를 올바르게 표기한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그 표기 원리와 규정을 익혀 국어를 로마자로 올바르게 표기한다.</p> <p>③ 좋은 문장 표현 ④ 효과적인 담화 구성</p>

특히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언급이 제7차 교육 과정에는 없었는데,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그 원리와 규정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교육 과정에 분명하게 명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이 곧 교과서 내용으로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국어 규범 교육의 문제점’에서, 문법 과목의 교육 과정 해설서에 ‘표준어와 표준 발음’과 ‘한글 맞춤법’ 부분이 풍부하게 서술되어 있는데도, 정작 문법 교과서로 실현될 때는 이 내용에 맞게 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제7차 교육 과정에서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원리가 문법 교과서에 잘 나타났다는 것도 살펴본 바 있다.

다음으로, 국어 규범 교육과 관련하여 산만하게 전개되었던 부분들이 구조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구조화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국어 규범 교육에 대한 질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어 규범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국어생활 과목이 유지되어야 한다거나 문법 과목은 필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제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제안은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어 규범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은 ‘체제’에 관한 방안과 ‘내용’에 관한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체제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생활 과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국어생활 과목이 없어지게 된 명확한 이유가 드러나야 한다.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이

나 관련 자료에는 ‘일반 선택 과목 폐지’처럼 모호하고, ‘수능 미반영에 따른 형식적 운영’처럼 비교육적인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사라지게 된 과목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과목은 교육 과정 상 ‘기여한 점’과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다. 기여한 점은 다음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문제점은 최대한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개정 교육 과정 ‘국어’ 과목의 6개 영역(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법, 문학) 중 하나인 ‘문법’ 영역과 개정 교육 과정의 선택 과목인 ‘문법’ 과목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국어 규범과 관련된 단원의 구분은 더욱 명료해야 한다.

<표 28> 개정 교육 과정 ‘국어 규범’ 부분

국어 과목 ‘문법’ 영역 집필 기준안 내용	10학년 국어의 ‘문법’ 영역	선택 과목 ‘문법’의 ‘국어와 규범’
(8) ‘국어의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의 4대 규범 가운데 학생들의 국어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2) 국어의 음운 규칙을 안다. -음운 규칙과 표준 발음, 표기의 관계 이해하기 (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알고 정확하게 사용한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 알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사용하기 -국어를 정확하게 표기하려는 태도 기르기	(2) 국어와 삶 (가) 국어와 규범 ① 정확한 발음 ㉠ 표준 발음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 각 지역 방언의 특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발음한다. ② 올바른 단어 사용 ㉢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 외래어 차용 현상을 이해하고,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규정을 익혀 외래어를 올바르게 표기한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그 표기 원리와 규정을 익혀 국어를 로마자로 올바르게 표기한다.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을 보면, 국어의 ‘문법’ 영역의 의미와 선택 과목인 ‘문법’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선택 과목인 ‘문법’이 국어의 ‘문법’ 영역을 심화·발전시켰다는 것은 ‘표 28’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어떤 기준으로 심화·발전시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심화·발전’과 ‘중복’은 의미가 다르다. ‘중복’이란 용어는 ‘위계나 단계’의 개념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므로, 제7차 교육 과정의 국어생활 과목과 문법 과목에서 ‘중복’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셋째, 제7차 교육 과정에서 ‘문법’ 과목을 선택한 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국어, 국어생활, 문법’의 3단계로 ‘국어 규범’에 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교육 과정에서 단위 학교에서 선택 과목인 ‘문법’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 학생은 ‘국어’ 과목에서만 국어 규범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어’ 과목의 국어 규범 학습이 더욱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개정 교육 과정의 문법 이외의 선택 과목(화법, 독서, 작문, 문학, 매체 언어)에서는 국어 규범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라도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매체 언어’ 과목은 국어 규범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한다.

민현식은 매체 언어는 반규범적, 규범 이탈적 언어 수행이 일상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청소년들에게서는 외계어 사용과 같은 언어 규범의 해방구를 보여 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규범 언어의 교육과 계몽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능 중심의 국어 교육은 지식 중심적 평가를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지식 교육이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벌어졌고, 문법 지식은 체계적·반복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규범 언어 사용의 당위성도 원리도 모르는 국민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75)</sup>

다음으로, 국어 규범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내용의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규범과 관련된 학습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단원 구성 체제가 교과서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별로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학습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같은 내용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어 규범과 관련된 개념 설명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 특히 ‘국어의 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의 개념 설명이 제각각이어서 많은 혼란을 주었다. 예를 들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한글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처럼 서술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는데, ‘표 28’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정 교육 과정 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국어 규범과 관련된 기본 용어와 개념 설명은 통일성을 갖고 교과서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국어’ 과목의 몇몇 학년에 편중되어 있는 국어 규범 관련 내용이 다른 영역이나 다른 학년으로 분산·배치되어야 한다.

2학년의 ‘문법’ 영역에는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알기’와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음을 알기’란 내용 요소의 예가 있다. 4학년의 경우는 ‘표

---

75) 민현식, 「매체 변화 시대의 국어 정책 및 교육의 방향」, 『새국어생활』 제15권, 2005.

준어와 방언의 개념 이해하기’, ‘표준어와 방언이 사용되는 상황 이해하기’, ‘상황에 맞게 표준어와 방언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등의 예가 있다.

4학년 정도는 이러한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지만,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학습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

한편 중학교에 해당하는 7, 8, 9학년에서 국어 규범과 관련된 학습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10학년의 경우는 ‘음운 규칙과 표준 발음, 표기의 관계 이해하기’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 알기’ 등의 내용만 나와 있다. ‘표준 발음, 한글 맞춤법, 표준어와 방언, 음운 규칙, 표준 발음, 표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이 어떤 순서나 원칙에 의해 제시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우선 국어의 규범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어 제시되어야 하고, 4대 규범의 용어 설명과 내용이 통일성 있게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4대 규범을 어느 학년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배워야 하는지, 그 원칙과 순서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용 지도서가 학습 활동에 대한 정답이나 예시 답안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어 규범과 관련된 학계의 의견이나 연구 동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고,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아 교사들의 지침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교육 과정의 ‘체제’와 국어 규범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누어, 국어 규범 교육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는다면, 제7차 교육 과정의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V. 결 론

지금까지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국어생활’과 ‘문법’ 교과서의 국어 규범 단원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 국어 규범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토해 보고, 효율적인 국어 규범 교육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국어생활’은 일반 선택 과목이며, ‘문법’은 심화 선택 과목이다. 학생들은 국어의 규범과 관련된 내용을 ‘국어생활’에서는 ‘바른 국어생활’ 단원에서, ‘문법’에서는 ‘국어의 규범’ 단원에서 배울 수 있었다.

‘국어생활’ 과목은 ‘실천’과 ‘실제 언어생활’을 핵심어로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국어생활 교과서는 ‘실천’과 ‘실제 언어생활’에 맞게 내용과 체계가 구성되어 있었다. 국어생활 교과서 속의 국어 규범 단원도 ‘실제 언어생활’의 활동이 강조되었다. 또한 다양한 학습 활동과 내용이 실려 있어, 학생들이 국어 규범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4대 규범에 대한 세부 내용이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잘 되어 있었다. 하지만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단원으로 설정되지 않은 교과서가 있어, 4대 규범에 대한 균형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 문법 교과서의 국어 규범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한마디

로 요약하면, ‘문법’ 교과서는 ‘국어생활’의 국어 규범 학습 내용을 심화·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문법 과목 자체로만 보면, 규범에 대한 원리와 개념이 잘 나타나 있었지만, ‘국어’와 ‘국어생활’에서 배운 내용을 총정리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있었다.

2007년 국어과 개정 교육 과정의 변화는 ‘국어’의 검정 체제 전환, ‘국어생활’의 폐지, ‘매체 언어’의 신설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생활’이 폐지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국어 규범 교육이 어떤 과목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살펴보았다.

가장 큰 특징은 국어의 4대 규범에 대한 내용이 ‘국어’ 교육 과정에 명시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내용이 10학년의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에 나타나 있었다.

‘문법’은 심화 선택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국어 과목의 ‘문법 영역’에 대한 학습 내용을 심화·발전시켰고, ‘실제 언어생활에 전이’라는 내용이 강조된 것으로 보아, 국어생활 과목의 성격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제7차 교육 과정의 ‘국어생활’과 ‘문법’ 교과서에 있었던 국어 규범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 과목의 ‘문법 영역’과 선택 과목인 ‘문법’으로 옮겨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국어 규범 교육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정 교육 과정의 ‘국어’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6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 가운데 ‘문법 영역’은 선택 과목인 ‘문법’과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 구분이 형식적이어서도 안 된다. 또한 ‘국어’의

‘문법 영역’에서 학습하게 될 국어 규범과 관련된 부분이 한 학년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고, 신설된 매체 언어 과목은 국어 규범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라도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국어 규범에 대한 학습 목표는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야 하고, 국어 규범에 대한 학습 단계가 학년마다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규범에 관한 용어와 개념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맞게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어 규범에 관한 내용이 국어 학습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단계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제7차 교육 과정의 ‘국어생활’과 ‘문법’ 과목의 학습 내용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어 규범 자체는 많이 강조되어 왔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국어 규범 교육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규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국어 규범에 대한 학습을 보다 정확하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기본 자료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국어과 교육 과정』, (주)세원문화사, 2007.
- 김대행 외 3인, 『국어생활』, (주)교학사, 2002.  
\_\_\_\_\_, 『국어생활 교사용 지도서』, (주)교학사, 2001.
- 김광해 외 4인, 『국어생활』, (주)케이스, 2002.  
\_\_\_\_\_, 『국어생활 교사용 지도서』, (주)케이스, 2001.
- 김홍규 외 2인, 『국어생활』, (주)천재교육, 2002.  
\_\_\_\_\_, 『국어생활 교사용 지도서』, (주)천재교육, 2001.
- 노명완 외 9인, 『국어생활』, (주)두산, 2003.  
\_\_\_\_\_, 『국어생활 교사용 지도서』, (주)두산, 2003.
- 박갑수 외 2인, 『국어생활』, (주)지학사, 2002.  
\_\_\_\_\_, 『국어생활 교사용 지도서』, (주)지학사, 2001.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문법』, (주)두산, 2002.  
\_\_\_\_\_, 『문법 교사용 지도서』, (주)두산, 2002.  
\_\_\_\_\_, 『국어(상) 교사용 지도서』, (주)교학사, 2002.
- 심재기 외 3인, 『국어생활』, 지학사, 2003.

- \_\_\_\_\_, 『국어생활 교사용 지도서』, 지학사, 2002.
- 이삼형 외 3인, 『국어생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 \_\_\_\_\_, 『국어생활 교사용 지도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1.
- 임홍빈 외 4인, 『국어생활』, 법문사, 2003.
- \_\_\_\_\_, 『국어생활 교사용 지도서』, 법문사, 2001.
- 조남현 외 3인, 『국어생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 \_\_\_\_\_, 『국어생활 교사용 지도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1.
- 한철우 외 7인, 『국어생활』, 대한교과서, 2002.
- \_\_\_\_\_, 『국어생활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2001.
- 한계진 외 4인, 『국어생활』, (주)블랙박스, 2002.
- \_\_\_\_\_, 『국어생활 교사용 지도서』, (주)블랙박스, 2001.

## 2. 단행본

- 강희숙, 『국어정서법의 이해』, 역락, 2003.
- 국립국어연구원, 『한국 어문 규정집』, (주)크리홍보, 2001.
- \_\_\_\_\_,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I』, 계문사, 2001.
- \_\_\_\_\_,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II』, 가야원, 2002.
- 김광해,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김진규, 『맞춤법과 표준어』, 공주대학교 출판부, 2005.
- 박덕유, 『문법교육의 탐구』, 한국문화사, 2002.
- \_\_\_\_\_, 『학교문법론의 이해』, 역락, 2006.

- 박삼서, 『국어 교육과 생활·문화·철학』, 국학자료원, 2003.
- 우형식, 『한글과 정서법』,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 이관규,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집문당, 2005.
- 이삼형 외 7인, 『국어교육학과 사고』, 역락, 2007.
- 이희승·안병희, 『새로 고친 한글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2005.
- 한국어 교육학회 편찬위원회, 『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2005.
- \_\_\_\_\_ , 『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2005.

### 3. 학술지

- 김대행, 「국어생활 국어문화 국어교육」, 『국어교육』 제119호, 2006.
- 김선철, 「표준발음법과 언어 현실」, 『새국어생활』 제14권, 2004.
- 김주필, 「표준어 사정 기준과 표준어의 성격」, 『새국어생활』 제14권, 2004.
- 민현식, 「매체 변화 시대의 국어 정책과 교육의 방향」, 『새국어생활』, 제15권, 2005.
- 박갑수, 「표준어 정책의 회고와 반성」, 『새국어생활』 제14권, 2004.
- 박덕유, 「국어 어문 규정의 인지 실태와 교육의 필요성」, 『새국어교육』 제66호, 2003.
- 박창원·김수현, 「외래어 표기 양상의 변천」, 『새국어생활』 제14권, 2004.
- 위호정,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 『국어

- 교육학연구』 제9집, 1999.
- 이관규, 「제7차 문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문법 내용의 특징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14집, 2002.
- \_\_\_\_\_, 「중등학교 문법 교육의 현황과 문제-국어생활에 유용한 문법 교육이 필요하다」, 『새국어생활』 제14권, 2004.
- 임영주, 「중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국어지식 영역에 관한 연구」, 『어문학보』 제26집, 2004.
- 이충우, 「국어 문법 교육의 개선 방안」, 『이중언어학』 제26호, 2004.
- 최경봉, 「문법교과서의 내용 체계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국문학』 제142호, 2006.

#### 4. 학위 논문

- 구정모, 「한글맞춤법 사용 실태 및 맞춤법 교육의 문제」,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김기용, 「고등학교 문법 교육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안 모색」,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3.
- 김밀라, 「국어 문법 교육과 교과서 문제점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김문향, 「외래어 표기 실태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 2005.
- 김지은, 「음운 단원을 통한 표준 발음 지도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7.

- 김진영, 「고등학교 국어생활 교과서 단원구성 체제 연구-제7차 11종 교과서의 비교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김현숙, 「표준 발음법의 비판적 검토」,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6.
- 민지현, 「고등학교 국어생활 교과서 비교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6.
- 박소영, 「고등학교 국어생활 교과서 분석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3.
- 신미경, 「7차 문법 교과서와 국어생활 교과서 비교 연구-표준어와 맞춤법 교육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6.
- 안홍근, 「교과서의 국어 규범 내용 및 문제점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7.
- 윤진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생활 교과서 편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이경진, 「고등학교 국어생활 교과서 비교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2.
- 이미애,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이지연, 「문법교과서의 비판적 검토-제7차 문법」,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6.
- 이효이, 「국어 로마자표기법 실태와 학교교육의 필요성」,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7.
- 정 영,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황재성, 「외래어표기법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6.

# ABSTRACT

## Problems of Education of Korean Norms and Measures of Improvement

- Centered on Units of 'Korean Norms' in High School Textbooks  
Including 'Korean Language Life' and 'Korean Grammar' -

Lee, Seok Hyeong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Language life complying with language norms serves as a basis of amicable communication, but most Koreans are unaware that Korean language has norms.

The author in this study defined that the system of 'curriculum' related to Korean norms and the contents of 'textbooks' should be discussed, identified problems through examining textbooks including 'Korean Language Life' and 'Korean Grammar', and presented measures of improvement.

In Introduction, significance of Korean norms and necessity of education of the norms are provided. Korean norms, in a narrow sense, indicate the Four Norms including Korean Orthography,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Orthography for Loanwords in Korean, and Romanization of Korean. The recognition of Korean norms has not yet generalized, and education for them in schools should be reinforced.

In Chapter 2 and 3, contents related to Korean norms in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were investigated. In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for High School, there are two textbooks, 'Korean Language Life' and 'Korean Grammar', concluding Korean norms as a unit.

The ways of the units related to Korean norms reflected in 'Korean Language Life' and 'Korean Grammar'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the curriculum. Education of Korean norms through 'practice' was emphasized in 'Korean Language Life', and principles or concept learning were stressed in 'Korean Grammar'.

Meanwhile, changes in the revision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 2007 may be summarized to be authorization system conversion of 'Korean Language', abolition of 'Korean Language Life', and introduction of 'Media Language'. In 'Korean Language' in the revision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 2007, contents related to Korean norms are included in 'Grammar Domain', and 'Actual Language Life' is

emphasized in 'Korean Grammar', an optional subject.

In the last chapter, problems of education of Korean norms and measures of improvement were presented. It was unclear whether the contents of learning on Korean norms are organically connected between 'Korean Language Life' and 'Korean Grammar',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phases are constructed to be deepened and developed.

In order to avoid overlapping of and to deepen and develop the learning contents related to Korean norms, it is necessary to precisely distinguish the peculiarities between the 'Grammar Domain' in 'Korean Language' and 'Korean Grammar' as an optional subject. Also, standards on learning content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for students to learn Korean norms according to the phases.